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그리운 어머니 I

－ <怀念母亲 I> 韓國語 翻譯論文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中 科

鄭允芝

2009年 8月

# 그리운 어머니 I

- <怀念母亲 I> 韓國語 翻譯論文 -

指導教授 宋 炫 宣

鄭 允 芝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8月

鄭允芝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安 在 哲 ①

委 員 宋 炫 宣 ①

委 員 趙 洪 善 ①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9年 8月

## 목 차

역자서문 .....	1
1. 타향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	3
2. 사스(SARS) 안에서.....	8
3. 중추절 보름달을 맞이하며.....	30
4. 인터넷 하버드 .....	39
5. 그녀 .....	47
6. 저우광 예찬 .....	49
7. 사랑했기 때문에.....	66
8. 주류사회.....	68
9. 아버지가 된다는 것.....	91
10. 여자친구.....	93

## 역자서문

본 번역본은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중국 작가 사오쿤(少君)의 작품 「그리운 어머니」에서 첫 열 편의 글을 차례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운 어머니」는 문학 장르 가운데 가장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장르인 수필들을 엮은 책이다.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붓가는 대로 견문이나 체험, 또는 의견이나 감상을 적은 글’이라는 수필의 정의처럼, 작가는 주변의 소소한 일상과 사물에서부터 역사와 사회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묘사했다.

작가는 글을 통해 주변의 평범한 사물에 나름대로 특징과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부담 없이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수필집이지만, 마냥 가볍게 읽어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도 많고, 중국인 특유의 정서와 감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중국의 독특한 자연과 풍경에 대한 묘사도 많았다. 정경 묘사와 감상은 번역을 하면서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이기도 하다.

번역을 하면서, 중국어 표기법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인식했다. 예전부터 한자음으로 표기해 오던 인명과 지명이 최근에는 중국어음으로 바뀌어 표기되는 데서 오는 혼란을 피하기가 힘들었다. 물론 1911년 신해혁명을 그 기준으로 삼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인 탓에 여전히 두 가지 표기법이 혼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옛 문헌에 등장한 인명과 지명, (현대의) 산·호수·강의 이름과 다리 이름은 한자음으로 표기했다. 또한 ‘장성(長城)호텔’과 ‘이화원(頤和園)’, ‘천안문(天安門)광장’ 등은 우리나라에 한자음으로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를 따랐다. ‘대강남(大江南)호텔’의 ‘대강남’처럼 일반명사적인 성격이 강한 단어도 그대로 한자음으로 표기했다.

그 외 현대 인명이나 지명을 비롯한 고유명사는 중국어 병음표기에 따라 처리했다. 단, 장작림(張作霖)과 장학량(張學良)이라는 인명은 비록 시점으로 보면 중국어음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자음으로 된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를 따랐다. 중국어음 표기는 1986년 1월에 문교부가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중국의 문화나 풍습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용어 처리에 다소 곤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했지만,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였다. 국내에 소개되는 중국 작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앞으로도 두 문화권 사이에서 활발하고 꾸준한 번역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작가 소개 - 사오권(少君)

본명 첸젠권(錢建軍). 1960년 베이징 출생. 중국 최초 인터넷 작가 세대로 미국과 중국에서 활동 중. 18세에 베이징대학 음향물리학과 입학, 졸업 후 <경제일보>기자로 활동. 1988년 미 텍사스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그 후 미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TII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국 샤먼대학·화차오대학·난창대학 교수 겸임. 주요 저서로는 「미명호(未名湖)」·「인생고백」 등이 있음.

## 1. 타향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

그 해 여름, 나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작은 도시 웨이코(Waco)에 도착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친구가 편지를 보내 왔다.

“여기는 말을 타고 누빌 만큼 드넓은 곳이야. 마치 내몽고의 대초원 같아.”

이 말에 전쟁터에서 출전을 기다리는 말처럼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어린 시절 살았던 베이징의 비밀 과학연구단지는 사방에 전기철표조망이 쳐져 있고, 건물들이 뻥뻥하게 들어선 곳이었다. 그 때문에 난 초원을 무척이나 동경했고, 멀리 나가지 못해 늘 안달이 나 있었다. 처음에는 외할머니를 따라 여기저기 산책을 다녔는데, 할머니가 앞서 걸으시면 그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외할머니는 젊었을 때 전족을 하셨지만 걸음이 무척 빠르셔서,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는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작은 형짚신을 신고 있었다. 늘 앞서 걸어가시는 할머니를 따라 짚고 가느다란 다리로 종종걸음을 해야 했지만, 할머니가 ‘합작사 (지금의 상점)’에 들러 맛있는 짜배기를 사 주시는 날엔, 그래도 따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빨리 걷는 게 습관이 되면서, 스스로 부지런히 걸어야지 누가 업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갔다.

열네 살이 되던 해 허베이성의 자오좡후(焦莊戶, 영화 「지하도 전투」 촬영지)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우리는 매일 사십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고 발에는 커다란 물집이 잡혔으나, 난 다른 친구들처럼 우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첫 편지는 외할머니께 썼다.

“어렸을 때 할머니랑 산책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네 엄마가 네 편지 받고서 많이 울었다. 요즘에는 군대를 가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가엾은 자기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걸어야 한다면서.”

할머니 편지에 다시 답장을 보냈다.

“이제 땅 위는 걷지 않아요. 지금은 백여 명 정도가 지하도를 기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각자 담요·군화·책·일기장·생필품을 담은 작은 배낭을 하나씩 짊어진 채로 이틀 동안 지하도를 기었다. 아직 5월이었지만, 허베이성의 날씨는 타

는 듯이 더웠다. 나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땀이 많았는데, 비좁은 지하도를 기어  
가다 보면 옷이 땀에 흠뻑 젖었다가 마르기를 반복했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크  
고 둥근 소금자국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열여섯 살이 되기 전까지, 내게 삶이란 부지런히 걷지 않았다가는 아무도 없는  
길에 혼자만 남겨질 것 같은 이미지였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훈련이 내게 심어  
놓은 환각이었다.

중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 드디어 멀리 떠나기로 결심을 했고 가족들은 기  
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해 했다.

“내가 갈 곳은 넓은 초원이에요.”

미국지도를 가리키며 가족들에게 말했다.

“네가 지금 여기저기 떠도는 걸 보니, 나랑 꼭 닮았구나.”

어머니는 놀라워하셨다.

비행기를 타고 기차보다 훨씬 빨리 바다를 건넜다. 즐겁기만 한 비행이 끝나고  
막상 내릴 때가 되니까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승무원 아가씨도 베일러대학을  
몰라서, 공항에서 그레이하운드버스를 타고 직접 가서 찾아보라고 알려주었기 때  
문이다.

그런데 마치 하늘이 정해 놓은 것처럼, 이 착오로부터 낭만적인 사랑이 시작되  
었다.

성실한 태도 때문에, 대학 시절 우리 과 여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날 먼저 찾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와 단정한 차림새 덕분에 어디를 가든 도  
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울 수 있다면 반드시 돕는다는 게 내 원칙이었  
다. 그런 내가 미국에 와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  
다.

달라스공항에서 커다란 가죽가방 두 개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녀가 다가왔다. 당시에는 아직 그녀의 이름도 몰랐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가  
슴이 두근거렸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드러운 발음에 마음이 설레었다. 그것이 ‘타이완식 중국어’라는 사실을 나중  
에야 알았다.

“누굴 마중 나오셨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저는 캘리포니아주에 사는데, 내일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 타요. 달라스에 가시나요?”

“아니요,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웨이코에 가요. 공항에서 하룻밤을 새야겠군요.”

그 순간, 낯선 사람과 길게 얘기하지 말고 더군다나 여행일정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부모님의 당부들 까맣게 잊어버렸다. 당시 한창 혈기왕성했던 나는 검정색 셔츠를 입고 있는 이 여인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다.

“공항에는 버스가 없어요. 우선 나랑 우리 친척집으로 가요. 제가 내일 그레이하운드버스 타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말하는 태도로 보아서 는 누굴 속일 것 같지 않았다.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택시를 잡는 동안 한 쪽에서 가방을 들고 기다렸다.

공항을 빠져나갈 때는 이미 밤이 깊었다.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는 곳에 이르러 택시가 멈추자, 우리는 짐을 옮겨 크고 깔끔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비어 있었다. 거실과 침실이 연결된 방에 침대와 소파가 하나씩 있었는데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 곳은 그녀의 고모가 관리하는 아파트인데, 마침 빈방이 있었다.

대학 시절,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편이었고 여자 친구도 여러 번 사귀었지만, 간혹 놀러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잠은 따로 잤다. 그 여자들과 헤어진 이유는 다양했지만, 내가 도시남자 같지 않게 너무 보수적이라는 것도 그 중 하나였을 것이다.

기쁘면서도 불안한 심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에 타이완 여자와 한 방에서 잤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아신다면 날 가만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직도 아버지 몸에는 국민당군대와 싸울 때 박힌 총알과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사람이 젊은 시절에 종종 이렇게 낭만적이지만 도리에 어긋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신다.

미리 얘기한 대로 그녀는 침대에, 나는 소파에 누웠다. 그러나 낯선 곳에서 보내는 첫날의 설렘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아파트는 5층에 있었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어젖히자,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과 같은 불빛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차량의 행렬은 마치 길다란 용의 움직임을 보는 듯했다.

중국에 있던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장성호텔 안에 있는 한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는데, 밤이면 10층 창가에 기대서서 시가지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그윽한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곤 했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 역시 그랬다. 자리에 누운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둘 다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고, 어찌다 보니 각자의 살아 온 이야기를 거의 다 하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타이완 이민자들로, 타이완에 유학붐이 한창일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한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에서 생물을 전공했고, 아버지는 한 상장회사의 사장이었다. 당시 그녀는 하버드에서 MBA과정을 밟으려던 참이었다.

내 이력은 너무나 평범했다. 태어난 곳은 랴오닝성 하이청(海城)의 뉴장(牛莊)이라는 지방으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장작림(張作霖)과 장학량(張學良) 부자의 출생지로 유명한 곳이다. 한 살에 베이징으로 와서 여느 말 잘 듣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착실히 학창시절을 보내고, 순조롭게 대학에 합격했다. 14년을 베이징에서 공부한 후,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내가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초승달이 살며시 창문을 비추었다. 달빛은 그녀의 고운 얼굴을 은은하게 밝혔고, 그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조각과도 같았다. 달빛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는 사랑 얘기가 제격이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따금씩 나를 바라보았다. 그 당시 내 모습이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짐짓 노련한 척 애쓰던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때는 마치 내가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처럼 느껴졌고, 그녀를 앞에 두고 넓은 세상을 누비는 공주를 대하듯 조심스럽기만 했다. 그냥 이렇게 하룻밤이나 그녀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대학 때 연애해봤나요? 참 잘 생기셨는데.”

순간 얼굴이 벌개졌다. 난 그녀의 열망에 온몸으로 반응했고, 그녀의 질문에 바보 같은 웃음으로 대답했다. 순진하게 웃던 내 모습은 그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훗날 그녀는 편지를 통해 나의 그 순수한 모습이 소녀 시절 꾸었던 꿈과 같았다고 말했다. 기교를 부릴 만큼 그녀의 중국어가 능숙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가 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꿈이었다.

아쉽지만 현실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녀에게 날 사랑하고 따라와주길 감히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그토록 부모에 순종적이고, 또 쉽게 맘을 돌릴 줄은 미처 몰랐다. 그 때만큼은 나만 바라보았던 중국 여자 친구들이 그리웠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다는 점에서는 그녀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녀가 원망스럽다. 미국에서의 첫해는 여섯 살 연상인 그녀와의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울고 웃으면서 보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그녀의 편지들은 하나같이 짧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녀가 이메일을 주로 썼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다.

“우리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아마 누나 동생, 혹은 살짝 스쳐가는 인연으로 남을 운명인가 봐. 부모님께서 여름방학 때 타이완으로 가서 친구분 아들을……”

뒷부분은 내 눈물 자국으로 얼룩이 졌다. 그녀가 내게 준 사랑을 난 세월 속에 묻어버렸다. 떠돌이처럼 처량한 심정으로 홀로 밤바람 속을 헤맸다. 좀더 성숙해진 다음에 옛일을 돌이켜 본다면, 아마 그때는 더 이상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는 않을 것 같다.

## 2. 사스(SARS) 안에서

2003년 3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5차 중국작가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유행성전염병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타이베이에서 이미 해당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듣기로는 ‘급성호흡기증후군’이라는 병이었다. 월말에 미국으로 돌아와서야 이 병이 세계 의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비전형폐렴(우리 나라에서는 ‘비정형폐렴’이라고 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월에 중국 대학 두 곳에서의 강연과 논문심사, 베이징에서 열리는 서부대개발 관련 세미나에 참가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뒤라, 미국에서 ‘사스(SARS)’로 불리는 이 병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 당시 베이징에서 사스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때였다. 4월 2일, 중국국가보건부에서 베이징은 사스 위험지역이 아님을 선포했다. 4월 3일, 장원강 국가보건부장은 CNN을 통해 베이징의 사스 발병사례는 12건, 사망은 3건에 불과하며, 상황은 이미 통제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4월 8일, 정부는 6일까지 베이징의 사스 감염자 수는 총 19명이고, 이들 모두 격리 수용됐으며, 이미 통제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명췌농 베이징시장은 사스 감염자수가 1,200만 베이징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며 이미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었으므로,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런 소식들 덕분에 나는 내 중국행에 대한 주변의 근심 어린 시선을 일소에 부칠 수 있었다.

1

4월 8일, <타임>지에는 「사스, 베이징을 덮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중국 의사 ‘장옌융’이 서명한 편지를 인용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그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사스환자 60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4월 3일까지 6명이 숨졌다. 그는 편지에 “오늘 병원에 가보니, 보건부 발표에 의사와 간호사 모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라고 쓰는 한편, 보건부 관계자를 호되게 비난했다. WHO는 4월 10일, 베이징의 발병보고 통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4월 11일 베이징을 또다시 사스 위험지역으로 선포했다.

가까운 이들의 만류로 4월 5일이던 일정이 같은 달 15일로 연기되었다. 위와 같은 뉴스를 접하고 난 뒤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그 친구는 별것 아니라며 잘라 말했다. 서양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과장 보도하는 게 하루 이틀이냐는 것이다. 특히 “네 목숨만 중요하고 우리 목숨은 파리목숨이냐”는 그 친구의 마지막 말 때문에 망설임 없이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도쿄에 도착했을 때, 사태가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스웨스트사의 도쿄발 베이징행 항공기에서는 모든 스텐디스와 기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좌석은 5분의 1밖에 차지 않았다. 탑승 전 승객들에게 배부된 책자에는 미국무원에서 중국을 방문한 자국민들에게 위생과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내용과, 현재로서는 사스 치료약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책자를 끝까지 읽으니 졸음이 싹 달아났다.

사스(SARS)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의 약어로, 그 명칭은 병세가 심각하고, 급성이고, 호흡기와 관련된다는 세 가지 특징을 반영한다. ‘비전형폐렴’과 ‘사스’는 둘 다 이 미지의 전염병을 가리키는 의학용어다. ‘사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방법은 ‘에이즈(AIDS)’의 그것과 비슷하다.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의 약어다.

사스 바이러스는 일종의 신종 관상(冠狀)바이러스이다. ‘신종’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반드시 처음 생겨났다는 뜻은 아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관상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생겨난 새로운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며, 처음에는 동물숙주에 기생하다가 최근에야 인간에게로 옮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사스 바이러스의 최초 숙주가 어느 동물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향고양이, 닭, 그 밖의 특정 야생동물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는 박쥐이고,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모기에서 조류와 인간에게로 전파되기 때문이다. 또한 에이즈바이러스는 최초에 아프리카의 원숭이에서, 광우병 병원체는 말 그대로 소에게서 비롯되었다.

베이징에 도착해 보니, 사스는 이미 중국 전역으로 퍼져 나간 뒤였다. 늘 북적거리던 베이징 거리는 쓸렁하기만 했고, 다들 도시를 빠져나가는 분위기였다. 당

시 머물던 호텔도 텅 비어서 커다란 호텔식당에는 두 세 테이블 정도만 손님이 식사를 했고, 직원들은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일정에 따라 푸저우(福州)로 향했다.

4월 17일 푸저우사범대학에 도착했는데, 캠퍼스는 평소와 같은 분위기였다. 같이 아침식사를 한 교수에 따르면, 며칠 전만 해도 모두들 마스크를 하고 다녔는데, 보건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정리한 후에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한다. 외부에서는 무시무시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교내에서도 고열에 시달린 한 대학원생이 감염으로 의심 받긴 했지만, 캠퍼스는 대체로 평온했다. 교내 전체에 소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과초산을 사용한 것 같았다. 며칠 후 기온이 습해지고 모기가 많아지자 학교에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판람근(板藍根)차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차는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이맘때마다 학교식당에서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내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사스와 관련된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고, 설령 다른 지방의 사스 이야기가 나와도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푸젠성의 성도(省都)인 푸저우는 북쪽에 복산(福山, 중국어 발음은 ‘푸산’임)이 있어서 이름 붙여진 아름다운 도시이다. 또한 9천 년 전에는 도처에 있던 용나무 덕분에 도시 전체에 깔린 짙은 녹음이 더위를 막아주었다고 하여 ‘용성(榕城)’이라 불리기도 한다. 당나라 개원 13년에는 푸저우에 도독부를 두었는데, ‘푸저우’라는 명칭은 이때 생겨났다. 오대 양나라 개평 2년에 민왕 왕심지(王審知)가 성의 경계를 확장해, 경관이 빼어난 오산(烏山)과 우산(于山), 병산(屏山)을 편입했다. 이로써 푸저우는 ‘산이 성 내에 있고, 성이 산중에 있는’ 독특한 도시로 거듭남과 동시에, ‘삼산(三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북송 치평 3년에 태수(太守) 장백옥(張伯玉)은 관아 앞에 손수 용나무를 심고 백성들에게도 이를 널리 심도록 독려한 결과, 성 전체에 녹음이 가득했다고 한다. 송말 북쪽에서 동란이 일어나자 단종 황제가 푸저우에서 즉위하고, 이곳을 복안부(福安府)로 개명했다. 명말에 당왕 주율건(朱聿鍵) 역시 푸저우에서 즉위하고, 이곳을 천흥부(天興府)로 개명했는데, 북경(福京)이라고도 불렀다. 명·청 시대에 푸젠성은 푸저우부(府)의 최고 행정기관 소재지였다. 민국 이래로 푸저우는 줄곧 푸젠성의 성도가 되어 왔다. 1,600여 년 전 서진(西晉)의 상서랑(尙書郎) 곽박(郭璞)의 「천성기(遷城

記』에는 “왼쪽의 기산(旗山)과 오른쪽의 고산(鼓山)은 나라의 빼어난 두 가지 절경이다 (左旗右鼓, 全國二絶)”라는 구절이 있다. 푸저우는 곳곳에 명소가 널려 있다. 산으로는 고산·기산·청지산(靑芝山)·석죽산(石竹山) 등이 있고, 절에는 용천사(涌泉寺)·서선사(西禪寺)·임양사(林陽寺)·송복사(崇福寺) 등이 있으며, 탑에는 백탑(白塔)·오탑(烏塔)·나성탑(羅星塔)·서운탑(瑞雲塔)·삼봉탑(三峰塔) 등이 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아무리 와도 질리지 않는 도시가 이곳 푸저우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친구도 감염을 우려해서 학교를 제외한 공공장소는 되도록 피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베이징시간으로 20일 오후, 중국국무원에서는 뉴스브리핑을 통해 베이징시 사스 발병사례는 339건, 사스 의심환자는 400여 명으로 며칠 전 발표한 수치를 훨씬 넘어선다고 밝히고, 아울러 보건부장과 베이징시장을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두 시간 후, 이 소식은 홍콩 <성도일보>에 머리기사로 실렸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각 방송사들은 베이징의 동태를 시시각각 보도했다. 또한 중국 내에서는 갖가지 소문과 낭설이 난무하는 등 국내외가 들쭉였다.

중앙의 신속한 결정에 따라 사스 방지대책본부가 구성되고, 방지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중국국무원 우이 부총리가 총책임을 맡고, 국무위원 겸 국무원비서실장 화젠민이 부지휘자 역할을 맡았다. 한편 총액 20만 위안의 사스 예방기금이 마련되고, 디탄병원·여우안병원·베이징홍부전문병원·창신덴병원·402병원·세허병원 등 베이징의 병원 몇 곳이 사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중국의 모든 관방매체와 관리들은 하나같이 사스의 전개가 급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과연 정말 그랬을까? 대답은 ‘노’다.

광저우의 첫 사스환자는 2002년 12월 17일 병원에 입원하기 전 이미 7일을 앓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감염되었다. 2003년, 사스에 감염된 광저우의 한 대학 교수가 홍콩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것이 홍콩에서 사스가 번지게 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2003년 2월 28일, 광저우의 한 환자가 베이징 301병원과 302병원에서 차례로 진료를 받고 사스환자로 판명된 후, 베이징은 사스 위험 지역이 되었다.

샤먼(廈門)에서도 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나는 샤먼대학 강연계획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일찍 베이징으로 돌아와 4월 25일에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당시 상하이와 허베이, 산시(山西) 등지의 십여 개 도시에서 사스환자가 발견되고 나서야,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끔찍한 위험 한 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23일,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에 베이징에 이미 마스크가 동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 약국에서 마스크를 여러 개 산 후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친구가 시간 맞춰 마시라며 판람근 한 상자를 내밀었다. 인터넷에는 연일 놀라운 소식들이 올라왔다. 무시무시한 2월의 광저우를 용케 피했는데, 뜻하지 않게 4월의 베이징과 조우하게 된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 인류문명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자신감이 넘쳐야 한다. 위험성으로 따지자면 사스보다 훨씬 심각한 에이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면도 역시 문명과 함께 오늘날까지 살아 있다. 바이러스의 존재가 아직 인류에게 알려지기 전,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류는 바이러스 유전자지도까지 손에 넣었고, 더군다나 전세계의 유능한 과학자들이 밤낮으로 사스와 씨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은 여전히 이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시까지는 이미 텅 비고, 지하철도 승객 없이 운행한다고 했다. 하이톈구 일대를 지날 때, 친구는 재경(財經)대학과 길 건너 베이징교통대학을 가리키며 이들 대학이 이미 봉쇄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보니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당시 재경대학의 소요사태를 자세히 묘사한 글이다.

“겹에 질린 사람들이 짐을 싸 들고 허둥지둥 교문으로 몰려갔다. 기숙사는 순식간에 텅 비고, 사방이 하얀 마스크를 낀 학우들로 아수라장이었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휴교령 소식에 재경대학에서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 다음날 저녁,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베이징교통대학의 한 기숙사건물 15층에서 집단 발열증상이 나타났다. 4월 20일에는 한꺼번에 65명이 고열에 시달렸다. 4월 24일에는 인민병원이 베

이징 최초로 격리가 되고, 정부 소식통은 이곳을 ‘심각한 사스 위험지역’으로 불렀다.

사스가 발생하면서 할 일이 생긴 주민위원회 부녀자들이 팔에 붉은 완장을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일찍부터 이들은 가족계획 추진, 부부갈등·이혼과 같은 여성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국민을 위한 봉사에 적극 참여해 왔으나, 시장경제 도입 후 점차 할 일이 없어져 대부분의 시간을 오락으로 보내던 터였다.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이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갈 무렵, 새로운 일거리가 이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거리에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거나 해충박멸 캠페인을 벌이는 대신, 사스 예방책자를 돌리고 집집마다 돌며 체온기록표를 수거했다. 매일 아침 주민들이 체온을 재고 일일이 기록하면 이들이 와서 수거해 갔다. 이들의 방문이 썩 달갑지 않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해 붉은 여느 때와는 달랐다. 중국인들은 갑작스런 사스의 출현으로 일생일대 생존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사스가 무서운 기세로 퍼지는 가운데, 온 국민이 예고 없이 찾아 온 전쟁에 무방비 상태로 뛰어들었다. 의료진이 속속 이 전쟁터에 도착했고, 기자들도 위험을 무릅쓴 채 사명을 다했으며, 국민들도 서로 힘을 합쳤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하늘은 사스를 통해 세상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전형’이라는 단어에 대한 현대한어사전의 첫 번째 풀이를 보면, 대표적인 사건 및 인물이라고 나와 있다. 그 앞에 ‘아닐 비(非)’자를 붙이면 ‘대표적’이라는 의미는 사라진다.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폐렴’은 의학계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쏟아 온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스, 즉 ‘비전형폐렴 (우리나라에서는 ‘비정형폐렴’이라고 함)이라는 이 다섯 글자를 합쳐 놓으면, 듣기만 해도 식은땀이 나고 맥박이 빨라지고 사지가 무력해지는,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단어로 돌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종전염병의 출현을 두고, 인류가 현대화 추진을 이유로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자행한 결과, 동물끼리만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인류에게까지 옮겨온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개한테 물려서 광견병에 걸린다든가 벼룩을 통해 페스트에 감염

되는 사례에서 보듯, 오래 전부터 인간전염병은 동물전염병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옛날에는 인간이 야생동물, 가축·가금류와 한데 섞여 생활했으므로 동물에게서 병이 옮을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컸다. 다만 지금과 같이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남기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스 바이러스는 단시간 내에 온 중국을 휩쓸고 바다를 지나 구미지역으로 건너갔다. 이 같은 현상에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갖가지 병증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현실과 그 정신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천재(天災)든 인재(人災)든 인류문명을 뒤덮는 그림자들은 모조리 파헤쳐져야 한다.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일을 또다시 겪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인류는 생태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절제할 줄 아는 생존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체 사회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여 갑작스런 재난에 대처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사스의 한 페이지를 가볍게 넘겨 버린다면, 재난이 인류에게 일깨워 주는 위와 같이 절박한 문제들은 금새 잊혀 버리고 말 것이다.

베이징으로 도착한 후,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자 친구는 만류하면서도 은근히 부러운 눈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염지역을 멀리 떠날 수 있으니, 외국여권이 좋긴 좋다는 것이다. 그 순간에도 백 개 가까운 국가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사실 중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생명은 다 같이 고귀한 것이요, 누구에게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세계가 중국을 악성전염병의 발원지로만 바라볼 때 중국인들이 느끼는 비애와 고통은 참으로 처절하다. 나는 같이 식사를 하던 <문예보>의 진젠관 편집장에게 이번 재난은 사람들이 죽음과 자신의 생활, 역사, 가족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 역시 집에 더욱 자주 전화하고 가족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장은 1972년과 1989년 유네스코에서는 각각 ‘생존’과 ‘관심’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고 했다. 이는 우리가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에는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능력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 나아가 주변 환경과 타인에게 관심을 쏟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일깨워 주고 있다.

대강남호텔에서 숙소로 돌아오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는 하루 종일 50위

안밖이 못 벌어서,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방금 들은 우스갯소리를 들려주었다.

첫째, 올해 발렌타인데이에는, 장미꽃은 못 보내도 사스 예방약은 보낼 것. 근사한 저녁은 못 먹어도 항바이러스제는 먹을 것. 분위기 챙기는 것은 잊어도 식초 소독은 잊지 말 것. 콘돔은 안 하더라도 마스크는 할 것.

둘째,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기분은 매우 나빠짐. 감염을 피하려면 멋도 적당히 부릴 것. 실내는 환기시키고, 공공장소는 피할 것. 외출 시 마스크를 하고, 잘 때는 이불을 덮을 것.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고, 키스는 적게 야채는 많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신이니 유령이니 하는 황당한 얘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나 사스가 중국대륙을 집어 삼키면서부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스에 관한 괴담 때문에 절로 한숨이 나왔다.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중국에만 있어온 것은 아니다. 중세 서양에서도 마녀니 뱀파이어니 하는 괴이한 소문이 나돌았고, 그때마다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곤 했다. 자꾸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급속도로 발전한 중국 경제는 사람들의 생활뿐 아니라 인식까지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변별력과 취사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상업주의에 물들어가는 TV와 인터넷, 신문 같은 매체는 그저 현상의 걸면만을 꾸미고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해외에서 이를 지켜보는 동포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4월 24일 저녁, 작가 홍잉 씨가 ‘차이견상’이라는 항저우음식점에서 날 위해 송별회를 열고, 영화감독 후웨이 씨 부부를 초대했다. 나도 CCTV의 젊은 여성 연출가인 샤오샤오 양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 송별회 장소로 가는 길에 그녀는 내게 사스 예방법이라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다진 마늘 두 쪽을 삭힌 두부 반 통과 섞은 다음,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몸에 바른다. 그러면 누구도 반경 10미터 이내로는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하는데, 이는 상대의 침이 튀는 사정거리를 충분히 벗어나는 거리다.

샤오샤오와 홍잉은 둘 다 충칭 출신의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들이고, 후 감

독의 부인인 주민이 씨도 미스 상하이 출신이다. 세 미녀와의 즐거운 대화와 훌륭한 음식에 눈과 귀와 입이 즐거워지니 그 순간만큼은 사스가 휩쓸고 다니는 바깥 세상을 잊을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사스가 개인적인 일이긴 해도 그 전염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책임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사스는 어느새 중국 정부의 시스템 운용능력과 공적·사적 관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이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돌아보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2

식사가 끝날 무렵, 청청한테서 전화가 왔다. 베이징의 동네 몇 군데가 추가로 폐쇄되고, 시에서는 초중고생 137만 명을 귀가조치 했다는 것이다. 청청은 내가 내일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를 베이징 밖으로 데리고 갈 수 없겠냐고 물었다. 베이징14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청은 학업을 위해 미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이래 처음으로 내게 부탁을 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난 그 즉시 항공편을 취소하고, 사스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부탁해 라싸·쿤밍·우루무치·둔황 등으로 가는 익일 항공편을 닥치는 대로 예약하려고 했다. 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생각이었다.

이렇게 해서 4월 26일 정오에 청청을 데리고 쿤밍으로 갔다.

쿤밍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야가 탁 트였다. 고층건물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푸른 하늘과 맞닿은 넓은 지평선 위엔 구름만 둥둥 떠다녔다. 이곳을 “넓은 들녘, 하늘은 나무 끝에 나직이 내려앉았네 (野旷天低树)”라는 두보의 시구에 빗대어 “넓은 들녘 구름이 나무 끝에 나직이 내려앉았네 (野旷云低树)”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다. 쿤밍에 있는 동안에는 달리는 차 안이든 세계박람회 공원이든 민속촌이든 어딜 가든 구름을 볼 수 있었다. 윈난(雲南)은 모든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라고들 한다. 강·호수·폭포·산·숲·동굴·눈..... 그런데 왜 여기에 구름이 포함되지 않은 걸까? 태족 소녀처럼 다정하고, 은둔자처럼 유유자적한 구름! 이곳의 구름은 너무나 아름다워 윈난이라는 이름에 전혀 손색이 없다.

쿤밍은 역사가 오랜 도시이다. 이곳에는 3만 년 전의 용담산(龍潭山) ‘곤명인

(昆明人) 유적지, 2천 년 전 진왕(滇王)의 옥쇄, 고당(古幢), 대관루장련(大觀樓長聯), 육군강무당(陸軍講武堂) 옛터 등 오랫동안 쌓여 온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특히 당대부터 각 왕조가 남긴 진귀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다. 일년 내내 온화한 날씨에 꽃이 만발하고 초목이 우거져 있는 이곳에는, 흐르는 물과 작은 다리가 있는 풍경, 자연의 기이한 절경이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끌어당긴다. 시내에는 고당·벽호(碧湖)공원·교야(郊野)공원이 있고, 외곽에는 정화(鄭和)공원·석림·대첩수(大疊水)폭포 등이 있다.

청청을 데리고 서산 전지(滇池)에 갔을 때, 학교에서 청청을 찾아 전화가 왔다. 베이징교육국에서 모든 학생들의 외출은 물론 도시를 벗어나는 것도 금했기 때문이다. 사스를 피해 서산에 왔다는 청청의 말에 전화를 건 선생님은 베이징에 있는 서산인줄 알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친구의 운전기사가 우리를 산중턱까지 데려다 주었고, 우리는 한 시간을 걸어 산정상의 용문(龍門)에 다다랐다. 사방을 둘러보니 하늘과 물이 맞닿은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졌다. 누구라도 이 같은 대자연의 숨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쿤밍 서남부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전지는 곤명호(昆明湖)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옛 이름은 '전남택(滇南澤)이었다. 중국의 6대 담수호에 해당하는 전지호(滇池湖)는 바다의 기상을 지녔다고 해서 예로부터 '오백 리 전지'라는 말이 전해 오고 있다. 쿤밍 서쪽 외곽의 서산은 화정산(華亭山)·태화산(太華山)·나한산(羅漢山) 등으로 이루어진다. 옛날에 봉황이 쉬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잘못 보고 '벽계(碧鷄)'라고 불렀다 하여 '벽계산'이라고도 전해진다. 수풀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한 서산의 광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이번 사스의 소용돌이 가운데 몇 안 되는 안전지대인 윈난에서는 외부인의 유입을 엄금했다. 베이징·상하이·광둥 등지의 여행객 유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여러 곳을 폐쇄했다. 우리도 현지 친구의 세심한 배려가 아니었다면 호텔 출입은 고사하고 쫓겨나가거나 격리되는 처지에 놓일 뻔 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윈난에서도 사스 예방운동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우리가 쿤밍에 도착한 당일 저녁, 쉬룽카이 윈난성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전국적으로 여럿이 모이는 회의나 활동을 금한다. 각 기관의 출장을 금한다. 단체관광을 금한다. 모든 기관에서는 직원과 그 가족들의 건강상태 보고시스템을

마련한다. 각급 학교의 교외 단체 활동을 금하고, 각 학원은 영업을 정지한다. 민간항공사와 출입국검역소는 발병지역 탑승객들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한다. 호텔 및 숙박업소는 발병지역 투숙객들을 받지 않는다.”

다리(大理)와 리장(麗江)에 도착하기 전, 이 지역은 이미 폐쇄상태로 들어가 리장에 피신하려던 류더화나 왕페이 같은 홍콩 가수들도 그대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청청이 이번에 가장 들어가고 싶어 했던 곳이 이 지역이었기에 나는 수완 좋은 윈난성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쿤밍을 벗어나자 도로의 차들이 눈에 띄게 줄고, 버스도 거의 안 보였다. 다리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즉시 체온검사가 있었다. 이곳이 덴시(滇西)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에 검사는 아주 철저했다. 다리는 전부터 자주 드나들던 곳인데, 시내로 들어가니 거리 전체가 썰렁했다. 지역 관광국에서 사스 경계기간 내에 다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고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고 현지 친구가 알려줬다. ‘공개서한’은 다리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 대한 거부의를 분명히 했고, 이미 도착한 관광객들은 돌아가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렌터카도 도시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되돌아가도록 권고 받았다. 한편 정부는 현지 호텔에 영업정지를 권유하고, 발병지역 관광객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내의 소규모 가정식 여인숙들도 속속 문을 닫았다. 그 덕에 우리는 어느 관광지를 가나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이해(洱海)의 배 안에서 주변 정취를 흠뻑 만끽할 수 있었다.

윈남성 중부 서쪽에 있는 다리 백족(白族)자치주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진,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사계절이 온화한 지역이다. 이곳에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백족을 비롯하여 한족·회족·리수(傈僳)족·장족·납서(納西)족 등 26개 민족이 거주하며, 영화 「다섯 송이 금화(金花)」의 촬영지로 이름이 알려졌다. 다리의 자연경관 중에는 창산(蒼山)과 이해가 가장 유명하다. 옛 이름이 ‘엽유택(葉榆澤)’인 이해는 ‘곤명지(昆明池)’라고도 불리며, 다리의 창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이해’라는 이름은 호수 모양이 사람의 귀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북쪽 덩촨(鄧川)에서 시작하여 남쪽 샤관(下關)까지 이어지며 호수 둘레가 100여 킬로미터나 된다. 맑고 투명한 호수는 동쪽의 자갈연안과 나머지 삼면의 모래톱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해의 물은 샤관의 서(西)이해를 지나 양비강(漾濞江)으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난창강(瀾滄江)으로 흐른다.

이튿날 우리는 쫓겨날 위험을 무릅쓰고 리장으로 떠났다. 다리에서 리장으로 가는 길에는 농사용 차량 몇 대 외에 다른 차는 눈에 띄지 않았다. 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증명서를 검사 받고, 체온측정과 소독을 했다. 여권이 미국여권인데다 문건에는 외국인 진입을 불허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검사관은 하는 수 없이 우리를 통과시켰다. 리장으로 들어서니 외지인을 받아들이는 호텔이나 여인숙이 하나도 없었고, 구청(古城, 리장의 마을 이름)의 여인숙들도 거의 다 문을 닫았다. 우리는 평소보다 다섯 배나 더 주고서 화장실이 딸린 방을 겨우 얻을 수 있었다. 주인이 말했다.

“이곳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한 적은 없었어요. 저녁이면 경찰이 순찰을 돌 텐데, 마주치게 되면 손님들도 큰일이지만, 나는 더 큰일입니다.”

다음날 리장에는 가랑비가 내렸다. 비는 얼굴 위에 흩뿌려지고, 옷깃에 스며들었다. 차가웠지만, 마음은 훈훈했다. 납서족 의상을 입은 한 아가씨가 부끄러운 듯 미소를 띤 채 가느다란 소리로 얘기하며 지나갔다. 청청이 리장에서 받은 첫 인상은 상냥한 여인의 느낌이었다. 흑룡담(黑龍潭)이라는 연못 가에서 손뼉을 힘껏 치니 물에서 거품이 일었다. 거품은 손뼉 소리에 따라 세계 일다 약하게 일다를 반복했다.

리장 구청의 사방가(四方街)를 걷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 돌로 된 길이 축축해졌다. 길 양쪽에는 공예품과 납서인들이 직접 짠 줄무늬 직물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부지런하고 소박한 납서인들 중에는 장사꾼의 교활함과 탐욕에 물든 이가 드물었다. 이들은 친절하고 개방적이어서 자신들의 집을 저렴한 여인숙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사방가 안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도시 사이를 강물이 구불구불 흐르는 모양이 마치 베니스를 연상시켰다. 그리고 강남의 운하마을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띄고 있어, 저우좡(周庄)과 비교하면 보다 화려하고, 문화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농후한 곳이었다. 사방가 곳곳에는 아름답고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작은 다리, 흐르는 물, 돌로 깔린 길, 늘어진 버들, 유리 안의 등불, 전통음악, ..... 모든 것이 마치 꿈속의 광경 같았다. 대석교(大石橋)를 지나 조금 더 가니, 아담하고 오래된, 심지어는 부식된 목조 건물들이 길을 따라 늘어선 오일가(五一街)가 있었다. 리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소인 이곳을 거닐다가 우리는 어느 조그마한 작업장 앞에 멈춰 섰다. 나이든 목공이 열심히 나무

를 다듬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팔려고 내놓은 듯한 이쑤시개·담뱃대·나무 팔찌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일과 생활에 여유가 있는 곳, 진지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흐르는 곳이 바로 리장이다.

리장은 택시비 몇 위안이면 시내 어디든 갈 수 있는 작은 도시다. 리장의 신비스런 문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고풍스러운 음악은 사람들의 넋을 사로잡는다. 사방가라는 거리는 리장의 구청 지역에 속해 있다. 붉은 칠을 한 문, 찻집과 여인숙의 옛날식 간판이 늘어서 있고 납서의 전통음악이 흐르는 아름다운 길이다. 돌이 깔린 길 위를 걸으면서 길가의 꽃 위에서 춤추는 나비를 감상하다 보면, 마치 머나먼 과거의 한 시점에 와 있는 듯한 황홀함에 젖어 든다. 모든 게 꿈만 같다. 조용한 거리를 흐르는 음악이 은은하게 귓가에 맴돌면, 내 자신이 오랫동안 바라 오던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꿈속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다가, 문득 자신과 비슷한 옷을 입은 채 중국어로 떠들며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면, 그제야 자신이 한낱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잡지에서 ‘타지생활’이라는 식상한 표현 대신 ‘유랑세대’라는 말로 나그네의 이런 생활을 정의한 적이 있다. 나는 이를 ‘가벼운 일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실 ‘가벼운 일상’과 ‘무거운 일상’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은 속세의 사람들도 가끔은 무거운 일상에서 벗어나 구름 같은 나날들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리장의 밤은 더욱 매력적이다. 이 가게 저 가게 둘러보다 피곤해지면 사람들은 강변으로 가서 물에 등불을 놓는다. 버드나무 아래 서서 자신의 희망을 실은 등불이 멀리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강 전체가 떠다니는 희망들로 밝게 빛난다. 우리 둘은 술집으로 들어가 강 쪽으로 나 있는 창가자리에 앉아서 조용한 리장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찾은 예스럽고 소박한 소도시. 그곳의 정경을 바라보며 시공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였다. 인생에 대한 낯섦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순수함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난간에 기대어 먼 산과 달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창 아래에서 구슬픈 소리를 내며 쉽 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문득 지나간 세월이 떠올랐고, 갑자기 강가로 가 보고

싫어졌다. 돌계단을 따라 강가로 가 보니, 달빛이 고요한 수면 위를 비추고 있었다. 우린 돌계단 위에 걸터앉아 신발을 벗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갔다.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 심장으로 퍼지고, 여행의 피로와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차가운 강물은 멀리서 찾아 온 손님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가을 밤 들뜨기만 한 마음을 가라앉혀주었다. 평온한 강은 달빛 아래서 바라보면 마치 늘 그래왔다는 듯 고요하기만 했다. 그러나 내 발을 적시는 강물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찾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고 분명하게 속삭였다. 멀리 흑룡담에서 여기까지 흘러와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 작은 강물은,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은인이지만, 강물에게 이곳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할 길목에 불과할 따름이다. 강은 나그네일 뿐이요, 나그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이다.” 달빛을 받으며, 강가 버드나무 아래 돌계단에 서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3

사방가 강가에 있는 ‘작은 파리’라는 술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동북지방에서 왔다는 여주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북쪽에 있는 집이 그리지 않나요?”

“왜 아니겠어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곳에 왔는데, 생각해 보니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며, 그러나 아직도 여기가 좋다고 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간 그녀는, 사스 때문에 건국 후 몇 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야 베이징 사람들이 드디어 차별 받는 기분을 알게 됐다며, 베이징과 사스에 관한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베이징에 사스가 유행하자 사람들이 하얼빈으로 피난을 갔는데, 하얼빈 사스 퇴치본부에서는 베이징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12일 동안 유료 격리시켰다. 일부 베이징 사람들은 격리조치를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로 하얼빈에 도착한 다음 베이징에서 온 사실을 부인했다. 네 명의 베이징 사람들이 차례로 하얼빈 고속도로 검문소에 도착해 몰래 통과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중년 부인이다.

검사원: 어디서 오셨습니까?

중년 부인: 하얼빈이요.

검사원: 베이징 쪽에 사스가 심각하지요?

중년 부인: 네. 말도 못해요. 얼마 전에 병원 입구를 봤는데, 이화원보다도 사람이 많아요.

첫 번째 사람이 격리됐다.

두 번째는 노부인이다.

검사원: 베이징에 사스가 심각하지요?

노부인은 먼저 번 중년 부인이 들키는 것을 보면서 단단히 주의를 하고 있었다.

노부인: TV에서 보니까 정말 심했지요.

검사원: (관심을 쏟는 척 하며) 부인, 몸조심하세요. 평소에 어디서 운동하나요?

노부인: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안문광장에서요.

두 번째도 격리됐다.

세 번째는 젊은 청년이다.

검사원: 평소에 어디로 놀러 가세요?

청년은 눈치가 빨랐다.

청년: 중앙로를 돌아다니거나 용담에 올라요.

검사원: 맞다, 중국 갑A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 어느 팀이죠?

청년: (흥분해서) 그거야 당연히 우리 '국안'팀 아닌가요? 국안이 영원한 1등이죠.

세 번째도 격리됐다.

네 번째는 간부다.

검사원: 중국 갑A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 어디였죠?

역시 간부는 아는 게 많았다.

간부: 갑A 경기는 별로 안 보고, 우리 하얼빈팀 경기만 봅니다.

검사원이 질문 몇 가지를 더 했지만, 허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간부의 체온을 잰다.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검사비용 5위안을 요구했다.

간부: (화를 내며) 내가 이래뵈도 국장급 간부요! 병원 가서 건강검진도 공짜로 받는데, 이 촌구석에 와서 그깟 체온 하나 재는 데 5위안을 낸단 말이요!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그녀의 흉내는 기가 막혔고, 거기다 동북지방의 우스꽝스런 발음까지 더해져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정말 유쾌한 저녁이었다.

그 농담을 듣다 보니 문득 예전에 받았던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떠올랐다.

“동북의 돈 있는 자를 정복하고 베이징의 권력 있는 자를 정복할 것.”

전자는 중국 경제발전의 선두주자요, 후자는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이다. 사스가 유행하자 여러 지역에서는 베이징과 광둥 사람만 보면 피해 다니기에 급급했다. 친구 한 명이 베이징 근교 농촌으로 드라이브를 갔는데, 마을 입구마다 사람들이 지켜 서서 들여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베이징과 광둥 사람들이 이토록 푸대접 받는 이유가 사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문제는 좀더 복잡하다. 그것은 바로 수도 시민으로서 베이징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우월감과 광둥인들의 부자의식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일종의 반감 때문이다.

“베이징사람들 눈에는 모든 사람이 아랫사람, 상하이사람들 눈에는 모두가 시골뜨기, 광둥사람들 눈에는 모두가 북쪽 촌놈” 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로, 이러한 우월감은 정치권력과 경제력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는 택시기사조차도 다른 지역 위원회서기를 우습게 본다는 사실은, 수도에 산다는 우월감이 서민들 생활 곳곳에까지 스며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러나 중국에 갖가지 차별이 오랫동안 존재해 온 원인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 사람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불공평하다. 중국은 예전부터 호구, 이주제한,

임시거주증에 따라 국민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권력에 따라 자원을 분배해 왔다. 그러다 보니, ‘없는 곳에 덜 가고, 있는 곳에 더 가는’ 현상이 생겨나, 도시는 갈수록 발전하고, 농촌은 갈수록 낙후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아마 사스는 하늘이 베이징에 내린 벌일지도 모른다. 사스 환자수로 보나, 사망자수로 보나 베이징은 단연코 1위였다.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중심지’가 된 것이다. 급속도로 번지는 사스를 막기 위해, 베이징과 광둥 사람들을 겨냥한 사스퇴치운동이 전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마치 인민전쟁을 보는 듯했다. 이후 쓰촨·후베이·산시(陝西)·시짱 어딜 가도 베이징 말투만 나왔다 하면 적잖이 곤욕을 치러야 했다. 베이징과 가까운 허베이에서는 베이징-톈진 고속도로를 끊어 베이징을 고립시키려 했다. 그런가 하면, 마을마다 주민들은 철조망을 세우거나 마을로 통하는 교통로를 차단하고 마을입구에 지켜 섰다가 베이징 번호판을 단 차량이 접근하면 “베이징에서 왔다, 빨리 막아라!” 고 소리를 질러댔다.

인민운동의 힘, 그리고 오늘날 TV나 전화와 같은 통신기술이 농촌에 가져온 위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최하층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던 농민들이 줄곧 높은 지위를 누리오던 베이징 사람들을 처음으로 괘시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베이징 사람들로서는 난생처음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는 셈이었다.

중국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인구는 호구제에 의해 최하층민으로 분리된 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시로 올라와, 도시민들이 꺼리는 곳을 일을 도맡아 해왔다. 이들은 공사판 임시천막에서 지내며 타는 듯한 더위나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며, 육체적 고통은 물론, ‘귀하신’ 베이징 시민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정신적 고통까지도 감내해야만 했다. 그 동안 쌓여온 이들의 불만은 일단 터졌다 하면 견잡을 수 없게 될 지경이었는데, 사스가 그 불만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사스 바이러스는 건강을 위협하고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사회 질서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중국인들은 단 한 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베이징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사스가 터지자 중국의 새 정부 관리들은 신속히 움직였다. 사스 전개상황을 매일 발표하는 한편, WTO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국제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염병전문가들을 초빙해 사스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처음으로 중국 해군함정사고 및 희생자 수를 발표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사스는 중국의 대외관계,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외교부통계에 따르면, 5월 30일까지 중국에 제공된 정부차원의 지원금은 약 500만 달러, 국제기구 지원금은 4만 달러, 기타 기부금은 약 300만 달러로, 매우 서운한 규모였다. 중국 정부가 사스와의 전쟁에 수십억 위안을 투입했지만, 노동절연휴 동안에만 중국이 소비한 금액은 330억 위안에 달했다. 한편 133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중국인 입국에 관한 임시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스는 중국 대외경제관계에도 영향을 가져왔다.

갑작스런 사스의 출현은 중국 경제성장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다. 해외 경제전문가들은 앞다투어 2003년 중국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사스가 그 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7%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스가 시장에 행사하는 심각한 파괴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가벼운 감기가 중국 경제의 ‘폐렴’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에 미치는 사스의 영향력은 단시간 내에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보다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은, 세계 공급 사슬에서 중국의 위치가 흔들릴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요소와는 달리 전염병이 소비심리에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는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 공중보건시스템을 살펴보자. 사스 같은 전염병은, 사회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그 치료가 공공적 성격을 띠는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공중보건시스템은 매우 열악하다. 농촌에는 의료시설 및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하고, 빈곤지역의 입원비는 가계 수입의 2.5배나 되기 때문에 식구 중 한 사람이 입원할 경우, 그 가정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시스템이 이토록 취약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스가 들이닥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중증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를 지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기 십상이다. 주위에

서 그런 징조들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격리된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할 일 없는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한숨을 쉴 뿐이다. 우리에게 갇힌 짐승처럼 방안을 어슬렁거리며 나가지도 못할 약속을 계속 떠올릴 것이다. 회의에도 못 나가고, 보고서도 낼 필요 없고, 지시할 명분이나 대상도 사라져 버렸다. 무서운 것은 사스가 아니라 사스와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형용할 수 없는 허전함과 무료함, 공황이라는 것을 중국인들은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청두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구조요청 편지를 받았다.

우리는 사회과학원 연구생들입니다. 100여 명 정도가 차오양구(區) 화자디시리(里)의 한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건물에 격리되었고, 내일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1. 처음에 통보 받은 격리기간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5월 8일에 기간을 18일까지로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금은 5월 말까지로 연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구생 중에는 감염환자나 의심환자가 없는데 왜 수업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오래 격리되어야 합니까?
2. 지도원과 건물관리인, 경비는 격리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이들은 학생들과 같은 계단에서 살고 있어서 평소에도 접촉이 잦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천성적으로 강하고, 학생들은 감염에 약하다는 말입니까?
3.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아서 공부에 큰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고사하고 신문조차 볼 수가 없어서 (이 편지는 여러 곳을 거쳐 발송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4. 점심과 저녁 식사는 학생식당에서 차로 배달이 되는데 하루에 10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보조금은 한 달에 겨우 200위안입니다.

이런 격리조치는 매우 부당한 것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내린 결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수고를 덜기 위해, 또 일이 터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

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심심한 나머지 배우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채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반쪽이 고집이 세다거나 이상한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깥에서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 중국인들은 돌연 커다란 위기감에 빠져 들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별안간 자신의 삶에 무언가가 빠져 있으며, 관심과 이해, 소통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스스로 쌓아 온, 허울뿐이고 친밀함이 결여된 인간관계 안에서 고독과 긴장에 지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썰렁한 사무실과 왁자지껄한 술집, 상품이 잔뜩 진열된 대형마트 이외에 중국인들이 마음 둘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상한 음식에 파리가 피기 마련이다. 사스가 그다지 치명적인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식간에 퍼져 전국을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사스가 기생할 만한 조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스는 단순히 공중보건 문제에 국한된 자연적 질병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회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갑작스레 닥친 위기는 사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는 평소 우리가 간과했던 사회의 문제점과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위기가 사회를 일깨우고 진지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스는 분명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일만도 아니다. 불행한 사건 속에서 교훈을 찾아낸다면, 이것도 결국에는 가치 있는 경험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사스가 아니었다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사실도, 음식점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때로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스를 겪는 동안 많은 중국인이 가까운 이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지켜보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가 평소에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들이 사스를 계기로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커다란 불행을 나쁜 일이라고만 치부할 필요는 없다. 만약 그 안에서 긍정적 효과를 찾으면서 견뎌낸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사스 덕분에 중국인들은 여러 가지 절차나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활방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번 일이 중국인들에게는 아마 자신의 내적 재산을 발견해 내고, 자연과의 관계를 새로이 쌓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언젠가 보았던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떠올랐다.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외롭고 지칠 때 뒷문을 열고 나가 아름다운 자연의 정취를 느껴 보세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의 비정한 선택 가운데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후손이다. 사스가 맹위를 떨치긴 했지만, 치사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20세기 초 전세계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행성독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질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인류의 일부는 면역이 생겼고, 일부는 도태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페스트를 세 차례 겪는 동안 1억 4천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페스트의 고통 속에서 얻은 게 있다면 생존자들의 유전자에 변이를 일으켜 후대에 전해졌다는 점이다. 덕분에 후손들은 뜻하지 않게 에이즈 병원체인 HIV에 대한 면역력을 얻게 됐으니, 진화위복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 매일같이 상연되는 진화의 시나리오를 펼쳐보면, 그 안에는 무수한 희극과 비극이 담겨 있다. 행운의 여신이 누구에게 미소 짓느냐에 따라 무대의 주인공은 달라진다. 비록 무대의 막은 영원히 내려지지 않겠지만 말이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비상시국에 중국으로 발을 잘못 들인 덕에 나는 한 달 반 동안 사스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소멸되는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 기간에 베이징을 세 차례 드나들었고, 푸저우·장저우(漳州)·상하이·우한(武漢)·라싸·청두(成都)·중칭(重慶)·쿤밍·리장·다리·중톈(中甸) 등 여러 도시를 거쳤으며, 아미산(峨嵋山)과 옥룡설산(玉龍雪山)도 올랐다. 공항과 터미널을 들락거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바도 아니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영웅적 기개가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국에 남는 쪽을 택했다. 그럼에도 내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매일 잊지 않고 드린 기도 덕분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6월 1일에 베이징 공항에서 체운을 켜 후, 공항 서점에서 <중국일보>를 샀다. 첫 페이지에 실린 「중국 내 최신 사스상황 보고」이다.

신화사 베이징 5월 31일:

보건부 뉴스관공실에서는 31일 오전 10시 현재 중국 내 사스 발병사례보고는 총 5,382건 (의료진 발병사례 967건), 치료 후 퇴원사례 3,371건, 사망 332건으로 집계되었고, 전국 사스 의심환자는 1,003명으로 집계되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발병 집계: (31일 10시 현재)

지역	진단환자 (의료인원)	입원치료	사망
베이징	2,521 (399)	1,087	181
허베이성	215 (22)	152	12
산시(山西)성	450 (80)	338	21
네이멍구	284 (41)	156	28
톈진	175 (67)	87	14

.....

2. 추가 발병: (31일 10시에서 31일 10시)

베이징 1

타이완에서는 1주일 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병률이 감소하다 목요일(5월 29일) 크게 늘었다. 50건이 추가로 발병해서 누계치가 660건으로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81명을 유지하고 있다.

몇 시간 후, 밤의 장막이 깃든 태평양을 횡단하는 비행기 안에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6,500만 년 전에 세상의 주인공이었던 공룡이 직경 20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소행성에 의해 멸망하자, 비로소 인류를 포함한 포유류가 진화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우리가 공룡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

### 3. 중추절 보름달을 맞이하며

2004년은 암이 재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거의 매일 병원에 다니며 치료와 검사를 받느라 비교적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9월이 되자 중국과 타이완에서 각각 ‘중공중앙통일전선부 국경일 초청회’, ‘중국평화통일추진회 국경일 만찬’, ‘타이베이 중추절 연등회’, ‘<바람에 나부끼는 오성홍기> 문예만찬회’ 등 초청이 줄을 이었고, 그 중에서도 ‘홍콩·마카오·타이완 및 재외동포 국경일 초청회’ 초대장은 특급 우편으로 배달이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일일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9월 중순, 오랫동안 병환에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고향을 방문하고 싶어 하셨다.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이번 중추절을 고향 땅에서 친지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것이다. 담당의사가 극구 만류하며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까지 했지만, 그래도 중국인의 전통을 따르자는 생각으로 서둘러 여행 일정을 잡았다. 어머니를 아메리칸항공 일등석 환자용 좌석에 눕혀드렸지만,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이번 여행이 어떨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고국에서 어머니의 여정은 놀랍도록 순조로웠다. 베이징에서 지난(濟南)·타이안(泰安)·취푸(曲阜)·옌타이(煙臺)를 지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고향의 정겨운 말소리도 계속해서 들려왔다. 고향 사람들의 환대와 자식들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셔서 취안칭(泉城) 광장과 태산 기슭을 걸어 다니셨다. 그뿐 아니라, 비 오는 날에 공묘(孔廟)와 공부(孔府)를 둘러보셔서, 공자 생가에서 어머니를 대접하던 공자 후손들을 놀라게 하셨다. 온 집안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모여 중추절을 함께 보내게 되자, 다들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늘은 흐렸다 개기를 반복하고 달은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듯 세상은 저마다의 이치에 따라 움직인다. 술잔을 기울이는 행복한 순간에도 중추절 보름달은 어김없이 떠오른다. 내세가 정말로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다면 현세에서 못다 이룬 아쉬운 일들을 이룰 수도 있고, 내세의 인연

을 기대할 수도 있을 테니까.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움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달이 찰 때마다 세상이 조화를 이룬다. 둥근 보름달이 뜨는 중추절이 되면, 모든 어머니들께 알려 드리고 싶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자식들이 항상 함께할 것이며, 모정은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빛나는 태양이자 우리 마음의 보름달과 같은 것이라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중추’라는 단어는 「주례(周禮)」라는 책에 처음 등장한다. 위진 시대에는 ‘중추 저녁에 신하들과 미복(微服)을 하고 강을 건넜다’는 기록이 있다. 중추절이 정식 명절이 된 것은 당나라 초기에 이르러서이다. 「당서(唐書)·태종기(太宗記)」에는 “8월 15일은 중추절 (八月十五中秋節)”이라는 기록이 있다. 중추절은 송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해 명·청 시대에는 원단(元旦, 양력설)과 이름을 나란히 했고, 춘절 다음가는 명절로 자리잡았다. 중추절 보름달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團圓)’ 하여 단원절(團圓節)이라고도 한다. 당나라 때에 중추절은 단정월(端正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명대에 단원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등장하는데, 「서호유람지여(西湖遊覽志余)」를 보면 “8월 15일은 중추절로 민간에서는 월병을 서로 돌리는데, 이는 ‘서로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다. 중국 대부분 지역에는 중추절 저녁에 ‘단원’, 즉 단원을 상징하는 ‘월병’이라는 떡을 굽는 풍습이 있다. 월병은 설탕·깨·꽃잎·야채 등의 소를 넣고 겉에는 달·계수나무·토끼와 같은 무늬를 새겨 넣어 만든다. 달을 향해 제를 지낸 후 집안의 어른이 월병을 잘라 각자에게 한 조각씩 나눠 주고, 자리에 없는 사람 몫은 따로 남겨 두는 행위는, 바로 가족의 단결을 상징하는 것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빗대어 만남과 이별의 애환을 표현하고, 타향살이 하는 이들은 더더욱 자신의 심정을 달에 비유했다. 당대 시인 이백의 “고개 들어 달을 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그리워하네 (舉頭望明月, 低頭思故鄉)”, 두보의 “이슬은 오늘밤부터 하얗게 내리고, 저 달은 고향에서도 밝게 빛나리 (露從今夜白, 月是故鄉明)”, 송대 왕안석의 “봄바람은 또 강남 기슭을 푸르게 물들이는데, 밝은 달은 언제면 돌아가는 나를 비출까 (春風又綠江南岸, 明月何時照我還)” 등은 시대를 초월한 주옥같은 시구들이다.

단원은 집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집’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맴돌게 되는 영원한 구심점이다. 멀리 집을 떠나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 나

역시도 고향에서 중추절 한 번 보내는 것이 자나깨나 소원일 정도이다. 달은 정서적 성격이 강한 소재로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가족과 친구들을 절로 떠올리게 한다.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붓을 들어 달을 찬미했지만, 달에 대한 시와 노래, 감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올해는 온 집안 식구가 베이징에 모여 온화한 달빛 아래서 월병을 먹으면서 함께 웃고 떠들었다. 참으로 아름답고 흐뭇하기 그 지없는 달밤 정경이었다.

어려서 베이징에 살던 때는 중추절 연휴가 3일이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베이징에서는 중추절 즈음에 토끼 인형을 파는 곳들이 있었다. 중추절에 이 달 속 토끼에게 제를 지내던 풍습 때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토끼 인형은 토끼 머리에 사람 몸통을 한, 흙으로 빚어진 인형이다.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하고 등에는 깃발을 꽂았는데, 얼굴은 대개 금빛이고, 몸통은 형형색색 칠을 했다. 서 있거나 혹은 앉아 있는 자세, 절구를 찜거나 혹은 다른 동물 위에 앉아 있는 자세가 많은데, 언제나 두 귀를 쫑긋 세운 모양이 우습고도 재미 있었다. 중추절에 토끼 인형들을 진열한 집안에는 참 그럴싸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맘때쯤이면 상인들이 방금 수확한 사과·배·포도·복숭아·대추 등을 거리 가득 늘어놓고 팔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베이징 첸먼 동쪽에 과일시장이 있었다. 음력 8월 13일과 14일 이틀 간은 대낮처럼 불을 환하게 밝힌 시장 여기저기서 상인들이 외쳐댔다.

“자, 오늘은 음력 14일! 맛있는 사과가 여기 있습니다! 200위안인데 40위안만 주세요.”

이제는 어딜 가나 햇과일을 볼 수 있지만, 예전의 정취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득 이백의 시가 떠오른다.

“꽃 사이에 놓인 술 한 동이를 친한 이 없이 혼자서 마시네. 잔 들어 밝은 달 맞으니 그림자까지 모두 셋이 되었구나 (花間一壺酒，獨酌無相親，舉盃邀明月，對影成三人)”

전에 ‘멍쯔’라는 네티즌이 올린 중추절의 감회를 읽은 적이 있다.

“문득 10년 전 미국에 처음 건너왔을 때가 떠오른다. 남쪽 작은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이 이별 뒤 우수에 찬 나날을 보내면서,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과거를 많이 회상하는 편이라, 주변 환경에 대한 느낌이 남들보다 한 박자씩 더디게 찾아온다. 기숙사 맞은 편 풀밭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연못과 이어진 계곡 물줄기가 구불구불 산비탈까지 이어졌다. 물속에는 자라와 수달이 노닐고, 못 주변 풀밭에는 야생오리 알들이 널려 있었는데, 무척이나 그리운 장면이다. 미국에서 맞이하는 첫 중추절에 열 명 남짓한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 월병과 맥주, 그리고 중추절에 전혀 안 어울리는 만두를 싸서 연못 주변으로 갔다. 거기서 우리는 몽롱하게 술기운이 오른 채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달이 떠오르기가 무섭게 냉랭한 표정을 한 경찰 두 명이 나타나 얼른 자리를 치우고 사유지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다. 그때 처음으로 타향살이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실감했다. 고국에서부터 있었던 무병呻吟(無病呻吟)하던 버릇이 사라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 후로 미국에서 다시는 중추절을 챙기지 않았다. 타향을 떠도는 이방인에게 중추절은 마음이 언짢아지거나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다. 사실 그 둥근 보름달이 내겐 은근히 부담스런 존재였던 것이다. 집 떠난 지가 오래돼 힘든 생활이 쌓여 갈수록 달도 함께 늙어갔고, 어린 시절에 보던 청명한 달의 모습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고집스럽게 달빛을 좇아 앞으로 나아가지만, 사실 과거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다. 다시 모두들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 순간을 그리며…….”

‘멍뜨’의 글에서도 보듯이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은 일종의 자연 현상이지만, 우수에 차고 감상적인 한(漢)문화 안에서 달은 인격화되고, 감성을 일깨우는 사물이 되었다. 한문화는 달이라는 대상에 농후한 감정적 색채를 입힘과 동시에 독특한 심미적 분위기를 부여한다.

이러한 독특한 정서로 인해, 나는 9월 28일 열리는 ‘중공중앙통일전선부 국경일 초청회’와 9월 29일 열리는 ‘홍콩·마카오·타이완 및 재외동포 국경일 초청회’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고, 어머니와 식구들 곁을 지켰다. 그날 저녁 하늘에 떠오른 달을 보니 시 한 수가 떠올랐다.

“천산에 떠오른 밝은 달이 아득한 구름 사이를 비추고, 수만 리를 불어 온 바람 옥문관을 휘몰아 지나네. (明月出天山, 蒼茫雲海間, 長風幾萬里, 吹度玉門關)”

“잎은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고, 비단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네 (葉落歸根, 衣錦還鄉).”

타향을 떠도는 이의 가슴 한 켠에 아로새겨진 글귀다. 첫 구절은 단순히 세상 살이의 처량함을 노래했지만, 뒤 구절에는 진한 눈물이 배어 있다. 인생의 표류와 갈망, 그리고 자아 이미지가 확대된 모순된 감정 등으로 말미암아 한(漢)문화에서 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타향살이의 괴로움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일을 하며 느끼는 스트레스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집을 떠난 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웬만한 고생쯤은 기꺼이 감수한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꿈 앞에서는 그저 핑계일 뿐이다. 수년간 계속된 고생스러운 시간은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좋은 집과 차, 그리고 그제야 목놓아 울 수도 있다.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은 왠지 허전하기만 하다. 악착같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가까운 이들은 멀어지고, 부모는 다 늙고, 자녀들이 커 가는 모습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 잃어버린 정은 이제 성공으로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중추절 보름달을 보며 탄식만 할 뿐이다.

어느 날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여류시인 류홍(劉虹)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아름답고 재능 있는 그녀는 지금까지 독신으로 지내오고 있다. 군인 출신으로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신장으로 가서 군복무를 마치고 신장대학 중문과를 졸업한 후, 안후이와 후난 지역에서 일해 오다 지금은 선전 비즈니스신문사 편집장을 맡고 있다. 가요계에는 큰 인기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실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활동하는 이들이 항상 있다. 시 문단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창작 스타일과 순수한 문학 정신을 고수하며, 소신껏 활동하는 시인들이 있다. 류홍도 그 중 하나로, 결코 조용하지 않은 문단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작가이다. 1976년 <시간(詩刊)>과 <인민문학>, 타이완 <창세기>, <푸른 별> 등에 몇 백 편의 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시간>에서 주관한 전국청년시(詩)대회에도 참가했다. 그 후 네 편의 시집을 출간하고, 전국신시(新詩)

대회에서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다.

나는 그녀가 1987년에 발표한 「바다에게」를 특히 좋아한다. 꾸밈없고 거침 없는 필체로 써 내려간 이 시는 양성(兩性)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바다’는 그녀의 이상형을 상징하는 소재로, 고뇌에 사로잡힌 남자가 내뿜는 깊은 한숨과 영웅적 독백이 시인의 영혼을 강렬하게 흔들어 놓는다. 바다는 시련에 단련된 남자의 강인한 영혼에 대한 은유다.

선박의 닻과 천둥번개가 번갈아 가며  
너의 피부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긴다  
오후의 태양빛이 너의 성대를 자극해 빛어내는 서사시의 파편  
낮선 곳으로부터 온, 경배하는 데 익숙해진 얼굴을  
너는 한꺼번에 드러낸다  
침착한 표정을 한 채  
너의 자유는  
배를 엮매는 밧줄을 거부한다

류홍이 「바다에게」를 통해 성별에 관한 자신의 이상주의를 밖으로 드러내고, 이상적인 남성상을 추구했다면, 국내외에 잘 알려진 「가슴에 바치는 글」은 안으로 향하는 여성의 운명에 대한 자기 고찰적인 시라고 할 수 있다. 1987년부터 2003년에 이르는 16년 간 중국이 겪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류홍의 내면에는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 물질에 대한 추구가 극에 달한 선전(深圳)에서도 류홍은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았다. 한 이상주의자의 상처뿐인 경험과 절망을 노래한 「가슴에 바치는 글」에는 류홍의 최근 생각이 담겨 있다. 즉, 그는 이 시를 통해 인간이 남성, 혹은 여성에서 출발하여 ‘위대한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섬세하게 묘사했다. 이 시는 작가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 받기 하루 전날인 2003년 3월 8일 밤에 쓰였다.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했던 두렵고도 외로웠던 그날 밤의 일은 작가의 전 생애를 통틀어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사랑이 덧없는 먼지처럼 느껴지자,  
당신은 홀연히 떠나갔습니다  
전부 아니면 무, 당신은 나와 같은 이상주의자입니다  
나는 병약한 체질입니다. 마치 이 나라처럼  
그리고 당신은 역사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언젠가는 밖으로 꺼내야 하는  
이중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딜 가나 고통스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가슴의 이미지는 자신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  
치다 결국 무너지고 마는 개인의 모습, 그리고 중국 민족의 상처 가득한 역사를  
상징한다. 이 시는 성별 의식을 인간에 내재된 가치에 대한 고찰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류홍은 번잡하고 세속적인 물질세계와 대조적으로, 시는 고귀한 정신세계의 사  
치품이라고 생각했다. 류홍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이유는 변함없는 솔직함과  
진실을 추구하는 천성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달리 아픔에 민감하여 자신의 소  
박한 영혼으로 세상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려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엄숙하고 고  
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녀는, 정신적인 면에서 진정한 귀족이다. 그러나  
이런 결벽성은 그녀에게 영원한 고독이라는 정신적 고통도 함께 안겨 주었다.

그렇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육의 정이다. 특히나 중추절이 다가오면  
더더욱 그렇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중추절에 대해 아늑하고 애뜻한 마음을 간  
직해 왔다.

“달빛이 어찌나 환한지 내 비단 휘장을 밝게 비추는구나. 근심과 시름으로 잠  
못 이룬 채, 옷자락 걸치고 일어나 배회하네 (明月何皎皎, 照我羅床幃. 憂愁不能  
寐, 攬衣起徘徊)”

“수루의 북소리에 사람 왕래 끊기고, 변경의 가을 하늘 외기러기 울며 가네.  
이슬은 오늘밤부터 하얗게 내리는데, 저 달은 고향에서도 밝게 빛나겠지 (戍鼓斷  
人行, 秋邊一鴈聲, 露從今夜白, 月是故鄉明)”

“침대 앞 밝은 달 빛나니, 땅에 내린 서리인 줄 알았네. 고개 들어 달을 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그리워하네 (床前明月光, 疑是地上霜. 舉頭望明月, 低頭思故鄉)”

시인들은 자신의 아픔과 그리움을 밝은 달 뒤에 숨겨진 희망과 동경으로 승화시켜 시로 표현해냈다.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함께 모이기 위함이고,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고향은 객지 생활로의 복귀를 뜻한다. 타향에서 생활해 본 사람만이 단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비워지고 채워지는 달을 보며 나그네처럼 감회가 깊은 이도 없을 것이다. 나그네의 심정은 영원한 인문적 주제인 셈이다. 객지를 떠도는 이들은 달을 보며 고향을 그리면서도, 타향을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들에게 귀향은, 쇠잔한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 부와 명예를 다 이룬 후에 치르는 만년의 의식과도 같다.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 있는 감정은 바로 그리움이다. 그리고 세월의 이끼가 되어 켜켜이 쌓인 그리움은 결국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다. 자신의 심정을 글로 나타낼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은 고향을 애타게 그리면서 타향에서의 삶을 각자의 마음속에 묵묵히 새겨놓는다.

“명월, 명월, 명월, 가득 찬 달도 언젠가는 아위는구나 (明月明月明月, 爭奈乍圓還缺)”

망한월(望漢月)이라는 송사(宋詞)의 첫 두 구절이다. 처음 이 사를 읽으면, 어쩔 수 없는 원망 뒤에 숨겨진 깊은 심정이 느껴진다. 작가는 행간에 숨어 있는 우울한 심정으로 애육에 불타는 이 세상의 남녀를 응시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마냥 즐겁기만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진정한 ‘정’의 의미를 헤아리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중국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오는 이별의 아픔과 집 떠난 이의 처량함, 영원한 찰나, 염제와 황제 자손들의 피에 녹아 있는 뿌리 깊은 정서를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인이 “바다 위에 밝은 달 떠오르니, 이 순간 그대도 멀리서 저 달을 보리라 (海上升明月, 天涯共此時)”고 노래했던

달밤이 되면, 당시와 송사를 떠올리고, 나무 끝에 기우는 달이 떠올리고, 향기로  
운 우병(藕餅, 중국에서 설날에 즐겨 먹는 연근으로 만든 떡)을 떠올리고, 머리가  
하얗게 세어 버린 부모를 떠올릴 수 있다. 덧없는 세월 속에서 부와 성공에만 매  
달리는 동안 고향의 부모는 서서히 늙어간다. 자식은 효도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  
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부단히 추구하고자 할 때, 고향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멀리 떨어진 가  
족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귀찮아하며 끊어버릴 때에도, 오랜 고생 끝에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순간을 꿈꿀 때에도, 기회는 늘 있는 것  
이 아님을 잊지 말자. 부모님이 서운하지 않도록, 잠시만 하던 일을 내려놓고 고  
향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자.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부모님을  
찾아뵙자. 이제는 주름이 하나 둘씩 내려앉기 시작한 자식 얼굴이나마 마주하게  
된다면, 부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른다.

#### 4. 인터넷 하버드

2001년 4월 23·24일, 하버드대 옌징연구소 (Yenching Institute of Harvard University)와 하버드 중국문화작업소의 초청으로 미국 동부의 문화도시 보스턴에 있는 100년 전통의 하버드대 옌징대회당에서 중국 인터넷 문학에 관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도착한 당일에는 북미작가협회 뉴잉글랜드지부 이사장 장평 여사와 부군인 황 교수로부터 점심 대접을 받았다. 장평 여사는 북미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작가로, 자신의 글처럼 아름답고 총명하며, 친절하고 상냥한 분이였다. 타이완사범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미시건대학원에서 역사학 석사과정을 마친 장 여사는 현재 하버드대 옌징도서관에 재직 중이고, 저작으로는 「하버드의 보물」, 「하버드, 하버드」 등이 있다. 부군인 황 교수는 하버드대 화학과 교수이자 유명한 화학자로, 진중하면서도 솔직한 성격에 부인의 문학 활동에 지지를 아끼지 않는 분이였다. 부러우리만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였다.

저녁에는 뉴욕에서 오신 북미작가협회 회장이자 <세계일보> 부이사장이신 마커런 선생과 하버드대 동아시아학과 리어우관 교수로부터 차이나타운에서 해산물로 차린 진수성찬을 대접 받았다. 싱싱하고 푸짐한 해산물 요리와 보스턴 랍스터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보스턴은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200년이 넘는 항구도시다. 규모는 그리 큰 편이 아니어서 도시 끝에서 끝까지 차를 타고 가도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 도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찰스강이 흐르고 있는데, 보스턴 시가지와 하버드대가 강을 사이에 두고 매사추세츠공대를 마주 보고 있다. 찰스강을 좋아하는 하버드인들 때문에 주말이면 양쪽 강변은 조깅이나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을 위해 대학 앞 강변도로에는 주말마다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찰스강에서의 뱃놀이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다. 강바람이 있어 수영은 좀 무리지만, 출렁이는 물결을 느끼는 것도 꽤 괜찮은 기분이다. 강 이름은 당시 영국 왕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한다. 신교도들은 조국의 박해를 받아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으로 쫓겨나야 했지만, 강 이름에서 조국에 대한 그들의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보스턴은 역사적인 도시로 미국의 여러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 도시와 관련

이 있다. 헌법 초안을 마련한 토머스 재퍼슨이 이곳 출신이고, 반세기 동안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한 케네디가의 본거지도 이곳 근처다. 또한 첫 이민자들이 타고 온 메이플라워 호, 미국 독립전쟁의 발단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의 발원지, 18세기 미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대서양에서 대영제국 해군과 사투를 벌였던 컨스티튜션 호 등 훌륭하게 보존된 역사 유적을 통해, 관광객들은 당시의 일들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 기나긴 인류 역사로 볼 때, 200년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미국과 전세계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근대사를 보면 거의 모든 세기마다 중대한 과학기술 발전이 산업혁명을 촉발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과 변혁을 이끌어냈다. 18세기 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19세기 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19세기 말 기차의 발명은 20세기 초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20세기 막바지에는 새롭고 거대한 첨단기술에 힘입은 정보혁명이 전세계 곳곳으로 파고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현재 전세계 하루 인터넷 접속자는 일억 명이 넘고, 그 수가 매일 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어를 매개로 하는 네티즌도 수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인터넷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전달매체로 자리잡았다. 인터넷이 거느린 독자층 규모는 종이 매체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짐작이 간다. 현재 전세계, 특히 북미지역에서 중문판 인터넷 잡지는 중국의 문화와 문학을 알리는 가장 빠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신문과 문학잡지를 훨씬 능가한다. 또한 지식층을 비롯한 북미 지역 중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와 과학기술, 경제의 발전에 하버드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학술적 지위를 담당했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과거와 현대의 주요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곳 케임브리지 하버드대 출신이다. 그 유명한 하버드 교정과 광장을 거닐다 보면 강한 학구적 분위기와 지식에 대한 갈증, 캠퍼스의 자유분방한 분위기, 이곳 출신 학자들에 대한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거기서 모교인 베이징대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미명호(未名湖)와 삼각지도.....

하버드를 소개한 한 중국어 책자에는 교내에 도서관이 백여 곳이 된다고 나와

있다. 이 숫자는 사실 도서관과 열람실을 모두 합한 것이다. 주요 도서관은 세 곳에서 다섯 곳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연구소 및 학과 도서관과 기숙사 열람실 등이다. 인문대학에서 힐리스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작은 도로 양쪽에는 붉은 벽돌이 깔린 잉글랜드식 인도가 있다. 그 위에 몇 십 미터 간격으로 놓인 가로등의 어슴푸레한 불빛은 정말 분위기가 있었다. 인적이 드문 깊은 밤에 도서관에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붉은 벽돌을 밟으며 가로등 아래를 하나씩 지날 때마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그림자를 보고 있자니 20년 전 도서관을 오가던 길이 떠올랐다.

간소하고 시원시원해 보이며, 심지어 빈약한 느낌마저 드는 하버드 엔지니어링대학은 사실 현실주의 건축학파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대 학생들의 생활을 담은 「러브스토리」와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과 같은 영화에서 보이는 상아색 건물들은 발터 그로피우스가 1950년대에 설계한 것들이다. 현실주의 건축의 특징은 인체의 특성을 고려해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의 용도와 기능, 다른 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조직하고 배치한다는 점이다.

강연에 앞서 나를 소개한 분은 예일대 교수이자 유명한 시인인 정처우위 선생이다. 나를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이 농담을 하셨다.

“사오권 씨를 소개하자면 이 시간에 다 못 끝낼 텐데, .....본인은 짧게 몇 자만 적었군요.”

“제가 어찌 하버드대에서 감히 제 소개를 길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하버드대에서 옛날 대학 동창을 만나 20년 전 대학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두웨이밍 교수님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분을 찾아뵙고 문화철학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어 시간쯤 지나서 친구가 저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묻길래 거의 모르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알아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는 하버드대에 왔고, 나는 못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류(五流) 회사를 다니고, 삼류 대학을 다니고, 이류 대학에서 일하고, 일류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하나 봅니다.”

모두들 박장대소했다.

사회를 맡은 두웨이밍 교수는 최초로 나의 의식을 깨워주신 분이다. 그분께 사사한 건 열 여덟 살이지만, 그 후의 삶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 세계적인 유학의

대가로 중국 철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두 교수는 전에 프린스턴 대학과 브룩클린 대학에 있었고, 현재 하버드대 동양학과 초대 학과장이자 연경연구소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문화중국’ 논설이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아, 최근 관련 국가로부터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의 지위도 꽤 높다. 내 강연 제목인 「중국 인터넷문학의 전망과 문제」는 최근 논의가 활발한 주제이기 때문에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저명한 문학평론가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리어우판 선생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당신도 인터넷 소설을 써야겠다고 했다. 가지고 간 신간 몇 십 권이 순식간에 동이 났다. 관중석에는 저명한 학자들을 비롯해 하버드대와 예일대 교수 및 석·박사생, 같은 무대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 타이완에서 온 소설가 주토펜 선생 등 여러 분이 앉아 있었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다. 그러나 강연을 그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인터넷의 탄생지는 미국이다. 1960년대 미 국방부에서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네트워크의 전신인 ARPANET (ARPA는 미 국방부 고등방위연구계획국인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의 약어임)을 구축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다양한 경로로 접속이 가능한 분산 구조로 이루어졌고, 중심기구나 최고 지휘기구 없이, 상호 연결된 여러 개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된다.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인터넷 네트워크는 크게 확장되어, 과학연구 및 교육, 정부 부문에 의해 주로 응용되는 한편, 점차 세계 최대의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90년대부터 네트워크와 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터넷은 급속도로 상용화되고 대중화되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지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전자 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상업 활동이 발생하는 곳에는 자연스레 문화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중심 기구 없이 아무 곳이나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에서 자료 공유와 언론 자유에 대한 요구가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터넷의 분산적인 특징 덕분에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경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접속 범위가 무한정 넓어졌다. 매력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문학의 전달 방식에도 일대 변혁이 일어나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했다.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은 80년대에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는데, 정부를 제외하고는 대학들이 시스템의 첫 번째 고객인 셈이다. 개혁개방의 물결을 따라

미국으로 대거 몰려간 중국 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선진 기술의 수혜자가 되었다. 1991년 4월 5일에 탄생한 세계 최초의 중국어 온라인 잡지 「China News Digest」는 조국을 그리는 많은 이들로부터 크게 환영 받았다. 매주 목요일마다 출간되는 잡지는 인터넷을 타고 세계 각국으로 전달되어 수만 중국인 가정에서 주말마다 필독하는 정신적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1991년 제4호에 첫 회가 실린 유학생 소설 「투쟁과 평등」, 14회까지 연재된 「귀국구직수필」 등은 유학생과 화교 사회에서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캐나다·호주·일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20만 명 중에 이 잡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어느 중문 매체에 뒤지지 않았다. 1993년부터는 세계 각국에서 중국 유학생 친선회에서 만든 중국어 인터넷 문학잡지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인터넷 문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온라인 매스미디어와 WEB이 결합하여 생겨난 문학작품으로 온라인에서만 돌아다니는 작품이다. 제휴 소설, 멀티미디어 극본 등이 대표적인 형식이다. 둘째는 기존 매체에서 발표된 문학작품을 전자문서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형태로, 흔히 볼 수 있는 ‘소설 모음 창고’가 좋은 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창작 수법을 사용하면서도 인터넷에 올릴 목적으로만 만드는 작품이다. 이것이 현재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인터넷 문학 형태로, 거의 모든 문학 애호가들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런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마땅히 발표할 곳이 없고, 인터넷에라도 올려놓으면, 작품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자신의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면, 누군가가 서점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작품도 사실 언더그라운드 문학이긴 하지만, 기존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분한 홍보만 뒷받침 된다면 자기 작품을 최대한 퍼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인터넷 문학의 독특한 가치관이 반영되었다. 인터넷이 독립적인 가상 세계인지 아닌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온라인 모임은 이제 사회적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추세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중요한 활동과 교류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이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과 예술, 철학이 생겨나게 되었다. 인터넷의 운용을 담당하는 기술과, 인터넷 생활의 정신적 차원이 반영된 예술, 그리고 인터넷의 존재 의의를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는 철학이 생겨나는 것이다. 가장 보편화된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은 인터넷 상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파급 효과가 큰 예술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인터넷 문학이 생겨나고 발전함으로써, 펜대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기존 작가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음과 동시에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문학 창작의 룰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1998년 10월에 중국에서 열린 북미중국문학세미나에서 북미의 독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인터넷 문학을 국내 작가들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반응은 원고료는 어떻게 책정하고 권권은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처럼 인터넷 문학과 관련한 문제는 저작 방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책임소재, 개념에 관한 문제로까지 연결이 된다. 20세기 말 중대한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문학은 사회적·역사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지니므로, 머지않은 미래에 서적과 신문잡지의 열람 및 보급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각 방면에 극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나와 함께 강연을 했던 주텐원 선생은 문학가 집안 출신으로, 부친 주시닝 선생과 여동생 주텐신, 주텐의가 함께 떠오른다. 1970년대에 타이완 문단에서 이름을 날렸으며, 수상작으로는 「황인수기(荒人手記)」가 있다. 그 동안 발표한 소설과 영화 극본이 수십 편이나 되지만, 여전히 문학에 대해 식지 않은 열정을 간직하고 있으며, 세기말 타이완 문학에 대해 나름의 탁월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 분이다. 현재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몇몇 대학에서는 그분의 소설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강연회장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훗날 타이베이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보스턴은 볼수록 맘에 드는 도시다. 곳곳에서 독특한 자태를 뽐내는 오래된 건물들, 일년 내내 수준급 연주를 선사하는 교향악단, 주말이면 다양한 연설이 펼쳐지는 센트럴 파크, 퀸시 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들, 조용하고 넓은 해변, 값싸고 싱싱한 랍스터, .....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밤이 되면 하버드 광장의 다양한 술집들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이곳에서는 가게에서 직접 만든 맥주와 푸짐

한 음식을싼 값에 맛볼 수 있는데, 손님들 대부분이 교수와 학생들이다.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생맥주 한잔으로 그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작은 행복은, 보스턴이 분명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이다.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등산에서 스쿠버까지 좋아하는 스포츠를 맘껏 즐길 수 있는 데가 또 이곳 보스턴이다. 드넓은 대서양과 바로 접해 있는 보스턴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40분만 가면 뉴햄프셔에 있는 산들을 만나게 된다. 그 광활한 공간에서 있으면 푸른 하늘과 넓은 대양에 금방이라도 닿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장평 여사는 가을의 보스턴이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라고 했다. 땅에 쌓인 낙엽이 온 도시를 가을의 색깔로 물들이고, 찰스강의 푸른 빛깔은 하늘빛과 구별이 안 될 정도라고.....

하버드 강연회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 시인과 작가, 교수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도 쌓을 수 유익한 자리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로 이별을 아쉬워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사해(辭海)」라는 사전에 수록된 문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 이데올로기의 하나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자로 된 일체의 서적과 문헌을 문학이라 총칭한다. 현대에 와서는 언어로써 사회를 반영하고,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을 가리킨다. 따라서 문학을 ‘언어예술’이라고도 한다.”

인터넷 문학의 사회적 의의는 문학의 그것과 같다. 인터넷 문학의 기원과 특징, 문제점, 발전 과정 등을 연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온라인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형성된 문학이, 어느새 서적 문학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일종의 인터넷 문학 체계를 구축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하버드대는 강한 보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물과 사상에 늘 열린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버드가 백여 년 동안 세계 교육의 정상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하버드 교정을 거닐다 보니, 고국 양안의 베이징대학과 타이완대학이 떠올랐다. 이 명문 대학들이 배출해낸 인재와,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 한 사람의 삶에서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새삼 실감이

났다. 고개를 돌려 이제 갓 여섯 살 난 딸아이한테 이다음에 어느 대학에 가고 싶으냐고 물었다.

“하버드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어찌나 기특하던지.

하버드를 떠나면서 인터넷의 신선한 새 바람을 느꼈다. 우리가 인식하던 못하던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차가우면서도 신선하게. 이제 그 바람을 맞이할 때다.



## 5. 그녀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동응답기에 남겨진 한 개의 메시지는 그녀에게서 온 발렌타인데이 메시지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좀 놀랐다.

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기에 그녀는 이미 내 기억 속 저편으로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다. 그녀와의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다. 둘 다 미국에 막 도착했을 때다. 그녀에게는 이미 오래 사귄 연인이 있었고 나 역시도 여자 친구가 있었다. 그녀가 있는 곳은 서부 연안, 내가 있는 곳은 남부였다. 그녀는 그곳의 기후가 이따금씩 찾아오는 내 우울증에 도움이 될 거라며 전학 오라고 놀리듯이 말하곤 했다.

그녀를 알게 된 것은 베이징대학의 무도회에서였다. 당시 무도회는 대부분 주말에 식당 홀에서 열렸는데, 음식 냄새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어지러운 분위기였다. 그 속에서 난 항상 망설이다 다른 남자에게 미인을 빼앗기는 수줍은 학생이었다. 사실 춤 때문에도 자신이 없긴 했다. 그때는 추석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밤이었고, 교내 식당마다 크고 작은 무도회가 한창이었다. 나는 심심해서 가을 밤을 짝으로 삼으면서도 내심 행운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쁘다기 보다는 재미있는 여자였다. 날렵하지 못한 나였지만 뜻밖의 기회를 거머쥘 수 있었고, 몇 곡을 같이 추면서 점점 그녀를 독차지하게 되었다. 변변한 연애 소설도 한 번 읽은 적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친한 척 하기도 그랬다. 간단한 말 몇 마디를 주고받은 후,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무슨 과 몇 학년인지, 어느 기숙사에 사는지,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줄줄이 물어봤다. 무도회가 곧 끝날 시간이어서 그녀는 묻는 말에 바로 대답을 했다. 그리고는 여자들은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숙사 화장실 문패 번호로 대답을 대신한다며 농담을 했다. 그녀가 나한테는 기숙사 방 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와 함께 유행가 콘서트나 공연을 자주 보러 갔다. 당시 식당 홀이나 하이텐 극장에서는 공연을 자주 했다. 게다가 우리는 둘 다 학생회 활동에 열심이어서 거기서 자주 마주쳤는데, 중간중간에 빈 시간이 많았다. 아마도 세 번째로 놀러 나간 때였을 것이다. 남자 친구가 작년에 미국으로 석사학위

를 따라 갔다는 그녀의 말에 난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학년이었지만, 나이는 나보다 두 살이 많았다. 어차피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나 역시도 출국 준비를 하느라 그녀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물론 둘이서 자주 놀러 나가긴 했지만, 피차간에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면 진지하고 심각해지던 난, 시원시원하고 잘 웃는 그녀의 성격에서 따스함을 느꼈다. 그래서인지 난 그녀에게 내 케케묵은 연애사를 자주 얘기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미국에 있는 자신의 남자 친구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내 마음을 헤아린 데서 나온 행동이었음을 알겠다. 인적이 드문 밤 단둘이 있을 때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 번은 날 쳐다보던 그녀의 까만 눈동자에 충동을 느껴 그녀를 덥석 껴안았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느껴지자 나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어느새 두 입술이 포개졌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고 망설여졌는지 그 다음 단계로는 진행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농담으로 그 뜨거웠던 열기를 식혔다.

나중에 그녀는 남자 친구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나는 나대로 졸업 후 일자리를 찾고 또 다른 사랑에 빠져들었다. 미국에서 그녀로부터 안부 전화가 오자 우린 서로의 행운을 빌어 주었다.

몇 년 후 나도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그녀가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전화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편안했지만, 내 생활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가식적인 느낌으로 가득했다. 공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타국 생활의 낯섦으로 인해 나는 점점 물 위에 떠 있는 고독한 섬이 되어 갔고, 그녀와도 서서히 연락이 끊겼다. 그러다 은연중에 듣게 된 그녀의 이혼과 재혼 소식에, 그녀가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게 안부 전화라도 하려는 마음에 전화번호를 뒤져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내 전화번호는 그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던 어제 자동응답기에서 오랜만이라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그녀를 내 연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발렌타인데이 밤에 그녀에게 전화를 하게 될 것 같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시절 그녀의 따스한 위안이 시린 내 가슴 속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 6. 저우좡(周莊) 예찬

“The town is a collection of beauty of China’s water townships”……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우좡을 예찬한 이 글을 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우좡에 대해 환상과 기대를 품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양자강 이남에 자리한 저우좡은 900여 년의 역사가 있는 물의 도시이다. 옛 이름은 정풍리(貞豐里)로, 곤산(昆山)의 서남쪽에 있다. 북송 시대에 주적공랑(周迪功朗, 관직명)이 이곳에 밭을 개간하여 마을을 세우고, 송나라 원우(元佑) 원년(1086년)에 논밭과 택지 200여 묘(苗)를 전복사(全福寺)라는 절에 시주했는데, 주장(周莊), 즉 저우좡이라는 명칭은 이때 생겨났다. 그러나 저우좡진(鎮)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청나라 강희 초년에 이르러서이다. 이곳은 상하이와 쑤저우 사이의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저우좡을 예찬한 이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곳은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물의 나라로, 크고 작은 물줄기들이 마을 사이 사이로 흐르며, 호수와 강이 서로 이어져 있는 바람에, 가까운 거리도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마치 정산(淀山) 호숫가에 박힌 보석과도 같다.”

이번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두 차례 회의(중국 서부대개발 관련 자문회와 베이징 하이테크 발전 세미나)에 참석하고, 대학 몇 곳(베이징대학, 샤먼대학, 푸저우대학 등)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다. 열흘 간의 일정은 매우 빡빡했다. 베이징 외에도 상하이·광저우·샤먼·취안저우(泉州)·푸저우 등을 차례차례 거쳐야 했는데, 짐을 채 풀기도 전에 일을 마치고 바로 다음 목적지로 떠나야 했다. 그렇지만 저우좡에서만큼은 장장 48시간을 머물렀고, 그 시간은 나에게도, 같이 간 지인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 셀 수 없이 많은 도시를 가 보았지만, 그런 내게도 그곳은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다. 900년 세월 속에 저우좡은 운하마을로서의 구조와 운치를 완벽하게 보존해 왔다. 베니스의 장관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저우좡에는 그 나름의 독특함이 살아 있다. 이 조용한 마을의 건물들은 오래 전에 지어진 것들

로, 민가의 60% 이상이 명·청 시대에 지어졌다. 400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마을 안에는 100여 채 남짓한 전통가옥과 60여 채의 전조(磚雕)문루, 그리고 저마다 특색을 자랑하는 14개의 다리가 있다. 마을의 도로 역할을 하는 물길 위로 곳곳에 다리가 놓여 있고, 물길을 따라 처마가 높이 걸린 집들이 늘어서 있다. 돌로 지은 선착장과 거리 난간, 옛 건물의 2층 베란다, 수상 누각이 줄지어 선 풍경에는 과거의 분위기와 향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물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고요한 마을에 예스럽고 소박한 멋이 흐르고 있는 이곳은 ‘흐르는 물·다리·인가(人家)’라는 강남 운하마을의 특색을 자랑하고 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 위에서 작은 배들이 가볍게 춤추고, 초록빛 나무 그림자가 여기저기 흔들리는 소박한 마을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원나라의 유명한 글귀가 생각났다.

“강남의 강물은 부드럽고 다정하여라, 작은 배는 강물 위를 유유히 흘러가네  
(吳水依依吳水流, 吳中舟楫好夷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저우왕행을 부추긴 사람의 성도 ‘저우’다. 자신은 정작 한 마리 물고기이길 바라지만, 그녀는 중국 평단에서 가장 촉망 받는 신세대 여류작가로 손꼽힌다. 그녀의 전생과 현생은 분명 저우왕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우왕에 대한 그녀의 예찬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멀리 미국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평생 가야 저우왕을 찾아가볼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세상에는 저우왕 말고도 가 볼만한 도시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를 비롯하여 저우왕을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어떤 알 수 없는 인연에 이끌린 것이리라. 우리는 그 인연 덕분에 저우왕의 황홀한 경치를 만끽하고, “하늘에 천국이 있다면, 땅에는 쭈저우와 항저우가 있고, 그 중에 으뜸은 저우왕이다” 라는 명언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상하이행 비행기에서 나는 저우 양으로부터 받은 책을 열심히 읽었다. 여러 가지 낯선 표현들을 접하면서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멀리 타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글에서 뿜어져 나오는 젊음의 기운을 느끼며, 이 ‘바다 물고기’가 무척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닷가 배 위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다 문득 인생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대야에서 물고기 하나가 뛰어 나온 것을 보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고 추측을 했던 적이 있다. 설 새 없이 파닥이다가 갑자기 온몸을 세우고 마치 물 속에서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담수어라면 누가 물 속에 다시 넣어 줄 때까지 축 늘어진 채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물고기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나, 종업원도 주방장도 다들 바빠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자 물고기는 몸을 벌떡 세우더니 그대로 죽어 버렸다. 일 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한 마리 물고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그렇게도 짧았다. 한때 내 자신을 바다로 헤엄쳐 나갈 수 있는 물고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내가 담수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 그 누구보다 약하기 때문에 남이 농락하면 농락하는 대로, 길들이면 길들이는 대로 자신을 내맡길 뿐이다. 물 속에 갇힌 채로나마 며칠이라도 더 사는 것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다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에 이 대목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고, 별안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가의 얼굴을 머리 속에 그려보기 시작했다.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다. 국내의 유명한 문학 사이트에서 우리 둘을 「떠오르는 셋별」이라는 칼럼에 같이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당시 10년째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였다. 그리고 경력을 보니, 저우 양 역시 신인은 아니었다. 9년 전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소설집도 여러 권 발표한, 말하자면 젊은 노작가였던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이메일을 통해서 시간이 되는대로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인생은 참으로 멋지다. 때로는 누군가의 웃는 모습, 내게 지어 준 표정 하나가 평생의 추억이 되기도 한다. 상하이 홍차오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그랬다. 공항에서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내 이름을 부르던 저우 양의 모습은, 저우왕을 여행하는 내내 머리 속을 맴돌았다. 난 숙명을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내가 기대하는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재능 있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는 일은 늘 커다란 즐거움을 안겨준다. 더군다나 함께 나타난 산문작가 천싱전 씨도 그런 여성

이었다. 나중에 나는 천 작가가 쓴 「저우쥙ANG 속으로」를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의 동반자로 선택했다.

흐르는 물과 작은 다리, 마을의 집들……. 10년 이상을 타국에서 사는 동안 과거의 일들은 연기처럼 희미해져 갔지만, 강남 운하마을의 아름다운 정경은 아직도 가끔 꿈에 나타난다. 비록 몸은 고층빌딩이 즐비한 도시 한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항상 맑은 하늘과 고요한 대지를 그리워한다.

“화려한 것은 금세 초라해지고, 변화는 단명(短命)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아무리 봐도 강남의 이 작은 마을보다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잘 반영하는 곳은 없는 것 같다. 위대한 은둔자는 속세로 숨는다고 했던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강남의 작은 마을에 몸을 숨기는 것이리라. 마을의 시가에서는 구태여 자신을 괴롭히며 고달프게 살지 않아도 될뿐더러, 오히려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아늑하고 정갈한 곳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다 보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곳으로 녹아 들어가 은둔 생활의 최고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유명한 산문작가의 글이다.

저우쥙ANG의 매력은 역시 물에 있다. 물은 집 앞을 지나 정자가 있는 뒷마당까지도 흘러 들어간다. 물길을 따라 늘어서서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는 명·청 시대의 가옥들과 순박한 마을 분위기 덕분에 저우쥙ANG은 강남 제일의 운하마을로 손꼽힌다. 타이완의 여류작가 썬마오는 이곳에 와서 ‘여행의 묘미’를 알게 되었다고 했고, 한 러시아 화가는 이곳을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렀다. 강남에 와서 저우쥙ANG을 보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것이라던 누군가의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높은 곳에서 저우쥙ANG을 내려다보면 호수가 이곳을 감싸 안은 모양을 하고 있다. 고요한 호수는 힘차게 흐르는 강이나 변덕스러운 바다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나룻배가 이따금씩 호수 위를 지날 때면 뱃사공의 힘찬 몸짓에 맞춰 리듬감 있게 들려오는 노 젓는 소리가 고요한 호수와 어우러져 훌륭한 연가(戀歌)를 만들어 낸다.

저우쥙ANG의 다리는 저마다의 크기와 모양을 자랑하지만, 그 중에서 쌍교(雙橋)를

전형으로 꼽는다. 명대에 지어진 이 석교는 견고하고 질박한 멋을 자랑하며, 석공교(石拱橋)와 석량교(石梁橋)로 구성되어 남북시하(南北市河)와 은자빈(銀子濱)이라 불리는 두 개의 물줄기 위를 가로 질러 놓여있다. 다리 하부는 각각 아치형과 방형으로 뚫려있고, 다리가 놓인 형태는 ‘ㄱ’자로 되어있다. 이렇게 지어진 다리는 마치 두 개의 물줄기에 굳게 채운 자물쇠 같다. 유명한 화가 천이페이(田逸飛)가 예전에 쌍교를 소재로 해서 그린 「고향의 추억」이라는 유화가 있는데, 당시 이 그림을 눈여겨본 미국의 석유 부호 해머(Hamer)가 이를 덩샤오핑에게 선물했다는 일화가 있다. 쌍교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다. 대부분 응회암으로 만들어진 저우좡의 다리들은 세계 각지에서 찾아 온 방문객들의 손길에 모서리가 다 닳아서 햇빛을 받으면 반질반질 윤이 난다. 저우좡의 거리는 매우 좁아서 대여섯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다.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골동품, 나무로 만든 그릇과 짚신, 저우좡 풍경을 담은 수채화 등을 파는 가게들이 길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모습은 독특한 정취를 자아냈다. 거리에는 각양각색의 과자점도 눈에 띄었다. 가게 주인들의 바쁜 손놀림을 보고 있노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즉석에서 만든 둥글고 네모난 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우좡의 수수한 분위기를 닮아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색깔을 띤 과자들은 맛있는 냄새로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풍부한 볼거리로 가득한 저우좡은 마치 끝없이 펼쳐지는 그림과도 같았다.

친절한 가게 주인의 술 권하는 소리를 들으며, 꽤 오랫동안 저녁 식사를 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요리 중에서도 저우좡 사람들이 자신 있게 내놓은 ‘완싼티’라는 돼지족발 요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맛은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별미 중의 별미였다. 저우좡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아포차(阿婆茶)는 마시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다기는 오래될수록 좋고, 물은 반드시 대나무 가지로 지핀 불에 도자기 주전자로 끓여야 한다. 먼저 차를 몇 분간 우려낸 후 뜨거운 물을 붓고 다시 우려내는데, 이렇게 하면 맛과 향이 더욱 진해진다. 6,70세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흔한 광경 때문에 아포차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저우좡에는 차 마시는 습관이 최근 들어 더욱 성행하고 있다. 차를 마실 때는 견과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간식을 곁들인다.

저녁이 되자, 저우 양과 나는 가게 주인의 배려로 가랑비 속에서 배를 타고 저

우장의 물질을 유람했다. 관광객들이 야경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강 주변에 등불을 설치해 놓았는데, 쌍교·복안교(福安橋)·정풍교(貞豐橋)·청룡교(靑龍橋)·태평교(太平橋)의 윤곽이 불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났다. 붉은 등을 단 작은 나무배 위에서 손님들은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쭈저우 평탄(評彈, 장쑤와 저장 일대에서 유행한 민간 문예)과 석극(錫劇, 장쑤 및 상하이 지역의 지방극)의 노랫소리, 피리 연주를 감상했다. 풍경과 정취가 서로 어우러져 너무나 아름다웠다. 저우장의 강물은 배가 나아가면서 만드는 물결 무늬도 거의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잔잔하다. 눈을 들어 등불이 걸린 강가 풍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이 탄 배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못 느낄 것이다. 오른쪽에는 푸른 기와집들이 줄지어 있고, 강을 향해 나 있는 창에는 붉은 등바구니들이 걸려 있었다. 불 밝힌 창문을 통해 커다란 탁자 곁에서 담소를 나누는 손님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우장의 가게 모습들이다. 왼쪽에는 푸른 기와집들이 물을 등지고 서 있고, 초록빛이 똑똑 떨어질 듯한 버드나무가 기와집 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강물에 마음을 빼앗긴 소녀처럼, 길고 가느다란 버들가지는 쉴 새 없이 강물에 입을 맞췄다. 이토록 황홀한 밤에 우리는 문학에 대해,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의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즘 젊은이들을 두고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릴 때는 조숙하고, 커서는 오히려 어려워진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는 연애에 몰두하고, 결혼해야 할 나이에는 독신을 선호하며, 대학에 가야 할 나이에는 집에 있고, 일을 해야 할 나이에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일다운 일은 안 하려고 한다. 풍요 속에 태어나서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성장한 이들을 부모세대는 늘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직장을 못 구하지나 않을까, 마약을 하지나 않을까, 나쁜 길로 빠지지나 않을까…….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학교와 부모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겉멋에 물든 도시생활, 육체적 환락, 낮보다 화려한 밤 생활에 열광한다. 주요 성장시기가 90년대인 이들은 70년대의 정치적 격변기를 겪지 않았고, 80년대에 꽃핀 여러 가지 사상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이들은 기성세대의 소망과 그들이 이룩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선택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만을 인정할 뿐이다.”

“그렇지도 모르죠. 하지만 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우 양은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내게 자신의 최신작인 「요정의 그물」을 내밀었다. 책 표지에는 “국내 최초로 프로작가가 쓴 장편 인터넷 연애소설”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루루는 글을 쓰는 작가다. 공직 사회를 떠난 뒤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처지에 놓인 그녀는 인터넷에서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생존 공간을 발견한다. 사이버 공간은 그녀와 같은 무수한 젊은이들이 자유를 만끽하는 장소가 되고, 채팅방이나 게시판은 자신의 울분과 욕망을 맘껏 분출하는 장소가 되었다. 현실과 인터넷 어디에서도 마음 붙이지 못한 채, 루루는 뜬구름처럼 인터넷을 떠돌고, 유령처럼 이 도시 저 도시를 헤맨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맺어진 사랑과 인연은 역시 그 안에서 쉽게 파괴되고, 이 때문에 그들의 감정은 더욱 불안해지고 심한 기복을 겪는다. 책 속에 등장하는 인터넷 소설과 애정 소설은 한 장 한 장이 감동적이었다. 여기에는 개방적인 인터넷 사회 앞에서 중국의 첫 인터넷 세대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실망감이 담겨 있고, 신신인류의 애정관과 생활 태도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의 희미하고 불분명한 묘사,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유머러스하고 기발한 독백 때문에, 도중에 책을 내려놓기가 힘들었다. 밤새도록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저우 양의 남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인터넷에서 노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 인터넷에서 난 루루 요정으로 통한다. 인터넷에서 처음 사용했던 이름은 ‘여기는 창저우(常州)’였다. 난 중성적인 그 이름으로 대화신청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실컷 낯선 이들과의 대화를 즐겼다. 그런데 그것은 커다란 실수였다.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한 후로, ‘여기는 광저우’, ‘여기는 양저우’, ‘여기는 항저우’ 등 비슷한 이름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게다가 이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마치 전국에서 대표들이 모여 전화회의를 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되자 혼란의 장본인인 나도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렸다.

“‘여기는 창저우’ 님의 말은 참 이상해서 마치 요정 같아요. 문장이 꼭 요정이 하는 말처럼 예쁘네요.”

어느 날 한 남성이 나를 보고 한 말이다. 그 후로 나는 내 이름을 요정 루루로 바꾸었다. 인터넷 상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인생이 한 번 바뀌는 것과 같다.

모든 게 다시 시작된다.

“왜 모두들 대화명을 매번 바꾸는가? 바로 다른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소(牛) 선생이라 불리는 블로거가 한 말이다. 나는 그래서 인터넷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 예전에는 인터넷을 하는 목적이 분명했다. 프로그램이나 자료는 최대한 빨리 다운 받고, 신문 기사도 제목만 훑어봤다. 유일하게 인터넷에서 한 일은 국내의 문학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하는 것이었다. 소설을 허가 없이 담아 가는 사이트가 많아서 그 증거를 수집한 다음, 계산서를 청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글을 쓰지도 않고, 쓰더라도 발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들의 글 솜씨는 다들 수준급이다. 만약 네티즌들이 입을 모아 이들을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인터넷 작가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실 프로작가로서, 이들의 소설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채, 다른 프로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소설을 폄하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 가운데 진정한 고수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에서만 글을 쓰는 이들은, 어쩌면 주변화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시차 때문에 일찍 눈을 떴다. 창 밖을 바라보니 안개가 얇게 서린 초여름의 여명이 눈에 들어왔다. 남쪽 호수에 안개가 어리는 그 시간, 저우짱은 마치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수목화처럼 신선하고 촉촉했다. 흰 벽과 푸른 기와가 담청색 안개 속에서 질푸른 물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거기서 마치 강남 소녀 특유의 부드러움 같은 것이 느껴졌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하늘거리는 작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은 장미향이 묻어나는 아기의 숨결처럼 은은하고 향기로웠다.

나는 문득 내가 이 강남의 작은 마을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월의 온갖 변화를 겪어 낸 그 연륜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변치 않는 순수함까지..... 그 푸르디푸른 산과 물에 둘러싸여 촉촉한 봄비를 맞으며 오래된 가옥과 나무들 사이를 거닐어 본 사람이라면, 아마 나처럼 이곳을 사랑하게 되리라. ‘흐르는 물과 작은 다리, 인가’가 있는 운하마을에 어느새 깊이 정들고, 한 폭의 그림, 한 수의 시와 같은 이곳의 정취에 취하고 말 것이다.

저우좡에는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물과 다리가 빚어내는 신비로움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오래된 건축물, 다채로운 민간 풍속이 빚어낸 그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다. 누군가 저우좡은 한 권의 책이라고 했다. 독특한 석교, 우아하고 소박한 가옥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라고. 누군가는 저우좡을 한 잔의 차라고 했다. 저우좡에서 마시는 차는 진하게 우려내지 않아도 그윽한 향이 온 몸으로 퍼진다고. 누군가는 저우좡을 한 폭의 그림이라고 했다. 풍부한 문화적 색채와 운하마을의 독특한 운치, 어딜 가나 물과 다리가 있는 풍경, 옮기는 걸음마다 눈을 사로잡는 절경이 바로 저우좡의 특징이라고. 물길과 나루터, 돌난간과 다리, 누각과 정원이 있는 운하마을의 정경은 마치 푸른 물이 사방으로 흐르고, 누각이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해 우리를 깊은 사색의 공간으로 데려간다. 저우좡은 물의 세계라고 저우 양은 말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 저우좡은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한 송이 수련과도 같다고 했다.

9,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서도 저우좡은 운하마을 고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강이 있으면 반드시 다리가 있게 마련이다. 다리는 길을 이루고, 다리는 도시를 이룬다. 다리는 서로 마주보고, 다리는 서로 이어진다. 다리는 이렇게 저우좡에 더 큰 매력을 불어 넣는다. 배를 타고 유람을 하며 다리 밑을 지나갈 때는 정말 색다른 기분이었다. 다리 아래를 하나씩 지날 때마다 새로운 풍경들이 하나씩 펼쳐졌다. 교각을 하나씩 돌 때마다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다양한 각도와 방향에서 바라 본 풍경은 마치 끝없이 펼쳐지는 그림책 같았다. 저우 양은 저우좡이 자신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고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남에 있는 수많은 운하마을 중에서 저우좡만큼 옛 모습을 제대로 보존한 마을은 찾아보기 힘들다. 저우좡을 둘러싼 징호(澄湖)와 백현호(白蜆湖)·정산호(淀山湖)·남호(南湖)는 배들이 유유히 떠다닐 수 있는 크고 작은 물길을 만들어 준다. 낮에 배를 타고 유람하던 중에 물가를 바라보니 머리에 수건을 두른 아낙들이 돌계단에 앉아 쌀과 채소를 씻고 있었다. 우물 정(井)자 모양의 물줄기는 마을을 나누고, 여덟 갈래의 긴 거리를 만들었다. 2층 목조 건물이 양쪽 물가에 뿔뿔이 줄지어 서고, 정교하면서 고풍스러운 석공교가 그 사이를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 또 군데군데 창문이 뚫린 흰 벽에는 빨래가 널린 대나무 막대들이 비스듬

히 기대어 있었다. 물 위에 비친 알록달록한 천조각들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추상화였다. 이따금씩 창에서 나온 물 양동이와 ‘철썩’ 소리를 내며 맑은 물을 한 가득 퍼 올렸다. 배들이 노 젓는 소리를 내며 생선·새우·게·마름열매·연근 등을 싣고 돌아다니자, 건물에서 줄에 매단 바구니가 내려와 장사가 이루어졌다. 물길을 따라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눈에 들어오면서 느낌이 확 달라졌다. 마치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정교한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다리 같았기 때문이다. 다리 위로 올라가 내려다 본 풍경은 ‘옛 정취’라는 한 마디로 압축할 수 있었다. 잔물결이 이는 맑은 운하, 물가의 아담한 집들은 하나같이 흰 벽에 어둡고 붉은 색 창이 나 있고, 강가에 늘어진 수양버들은 바람을 맞아 이리저리 하늘거렸다. 소음 하나 없이 조용한 이곳을 거닐다 보면, 마치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온 듯한 느낌, 시간을 잊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저우 양은 이미 이곳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어서 마주치면 아는 체 할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우리는 친절히 가게 주인들을 되도록 피해가면서 천년 된 돌길 위를 조용히 거닐었다. 멀리서 찾아온 두 이방인은 이렇게 마을 골목골목을 몰래 누비고 다녔다.

저우 양은, 강남의 다른 운하마을들과 달리, 저우좡에는 마치 감상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곳곳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흐른다고 했다. 수백 년의 세월 속에서 분명 적잖은 일들을 겪었을 텐데도 저우좡은 굳건히 예전의 모습을 지켜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이니, 해방이니, 문혁이니 하는 사건들이 이곳은 비껴 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어김없이 들이닥친 변화의 물결에 점차 현대적인 면모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발전하는 그 모습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저우좡은 깊은 땅 속에서 발견한 소중한 유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세상에 아직도 이런 진기함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에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모든 이들의 노고 덕분에 이곳은 신비함의 결정체로 거듭났다. 이제 이곳 사람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관광에만 종사한다. 집 앞의 응회암 바닥은 반질반질 윤이 나게 말끔히 정돈되고, 가옥들은 모두 정교한 수공예품을 파는 고풍스러운 공방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외지에서 찾아 온 화가들에게 세를 내어 주기도 하고, 민박집이

나 여인숙을 열기도 하고, 집을 가게 삼아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자수를 팔기도 한다. 조그마한 마을이 온통 화랑, 다방, 비단가게, 주점, 여인숙으로 들어차 있어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말 그대로 두 척 너비(약 2.6미터)의 저우창 거리를 걷다 보니 기분이 매우 가벼워졌다. 조금 가니 심청(沈廳)이 보이고, 조금 더 가니 장청(張廳)이 보였다. 저우창에는 독특한 자태를 뽐내는 다리들도 있지만, 전통가옥 역시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로, 그 안에는 옛 사람들이 가꾸 온 운하마을의 생활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저우창 건물은 반 이상이 명대와 청대에 지어졌다. 이곳에는 100여 채의 전통가옥과 60여 채의 전조문루가 있어 명·청 시대부터 운하마을의 독특함을 이루는 데 한몫을 담당해 왔다. 그래서 누군가 저우창을 중국 운하마을의 아름다움을 한데 모아 놓은 곳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원래는 대가족이 모여 살던 이곳의 가옥들을 보면 서양의 고층빌딩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홍루몽」 안에 펼쳐진 다채로운 일상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직접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서니 오래 전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잘하고 평범한 일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심청의 중앙홀에 해당하는 정청(正廳)의 양쪽 2층 벽에는 창이 하나씩 뚫려 있다. 여자들은 홀에 직접 나가는 것을 꺼려, 방안에 몸을 숨긴 채 이 창을 통해 손님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위를 대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행해졌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이 간다. 저우 양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했다.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 계단 위에는 분명 아가씨의 눈물 자국이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집이라면 그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이곳을 거닐다가 작가인 당신이 저우창에 관한 소설을 쓰면서 상상속 인물들과 함께 호흡한다면 참 멋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는 여행사에서 특별히 소개해 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심청을 구경했다. 심청은 유명한 대저택이다. 일찍이 심만삼(沈万三)의 집안은 ‘강남 최고의 부잣집’으로 통했고, 생각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 ‘완싼티(만삼제(万三蹄)의 중국어 발음)’로도 유명하다. 가이드는 유창한 말솜씨로 옛날 분위기나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심청이라고 소개했다. 마을에 있는 ‘정풍택국(貞豊澤國)’이라고 쓰여진 장식용 건축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청룡교를

지나고, 다시 강을 건너면 복안교에 도착한다. 이 복안교의 동남쪽에 바로 심청이 있다. 심청은 심만삼의 후손인 심본인(沈本仁)이 청조 건륭 7년(1742년)에 지은 것으로, 청말에 ‘송무당(松茂堂)’으로 개명했다. 서쪽을 향해 자리한 저택은 강가에 면해 있고, 길을 가로 질러 놓여 있다. 총 일곱 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사이사이에 문루가 다섯 채 있다. 고택에 대해 잘 모르는 관광객들은 단순히 대지주의 저택쯤으로 생각하고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저택에는 쑤저우와 후이저우(徽州) 지역 장인들의 솜씨가 녹아 있다. 심청의 전부(前部)는 수장문(부두)으로 되어 있고, 거리 쪽 장문루(牆門樓)에는 ‘심청’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다청(茶廳)을 지나면 정청인 ‘송무당’으로 들어오게 된다. 지붕면이 양면으로 경사진 맞배지붕 형태이며, 건물 앞뒤로는 격자 문양 난간으로 이루어진 긴 회랑이 있다. 홀 중앙에 설치된,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된 편액은 청나라 말기에 장원(壯元)으로 합격한 장춘이 손수 쓴 것이다. 청말 양식의 가구에는 그 시대의 분위기가 깊게 배어 있다. 심청 후부(後部)의 대당루(大堂樓)에서는 거대하고 기이한 심만삼 조각상을 볼 수 있다. 후부의 두 번째 건물인 소당루(小堂樓)와 후원은 위아래로 모두 연결되어 있고, 출토품과 민속 물품이 전시되어 있다. 내부에는 일종의 감실(龕室)과 비슷한 ‘천공상(千工床)’이 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세 겹의 병풍은 매우 정교한 솜씨로 제작된 것으로,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 조형만도 무려 서른 네 점이나 새겨져 있었다.

일찍이 나라에 건줄 만한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한 인물 덕택에 이 조그마한 강남 마을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심만삼이 그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은 전지와 택지를 개간했다는 점과 저우창을 상품 교역과 유통의 본거지로 삼았다는 점이다. 심만삼은 서쪽으로는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징항대운하, 동북쪽으로는 유하(浏河)와 연결되는 저우창의 지리적 이점, 그리고 장강 하구와 항저우만의 지형적 이점을 적극 이용해서, 인구가 많고 물자가 풍부한 항가호(杭嘉湖) 지역과 쑤저우·우시 일대의 비단과 자기, 식물기름, 수공예품 등을 해외로 실어 날랐다. 지리적 이점과 강남인 특유의 재간을 두루 갖춘 심만삼의 성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대문을 열고 심청 안으로 들어가면, 다청·정청·대당루·소당루 등을 차례로 거치게 되는데, 각 건물들은 누각으로 서로 연결되었다. 정청 내부의 굵은 기둥에는 구렁이·기린·두루미·봉황 조각이 새

겨져 있다. 정교하게 조각된 정청의 전조문루는 쭈저우 전조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상부에는 두공을 받치고, 아래에는 인물·짐승·누각 등을 소재로 한 다섯 층의 전조를 새겨 넣었다. 「서상기(西廂記)」·「장원기마(壯元騎馬)」의 스토리를 주제로 했는데, 저다마 다른 인물 표정들이 마치 살아 있는 듯 생생하다. 명대 양식의 원형 도안이 새겨진 대당루의 목조 구조물은 정청과 다른 분위기로, 공들여 제작된 난간과 창이 후이저우 양식에 가깝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심만삼의 재력에 비한다면 심청은 꽤나 검소하게 지어진 편이었다. 조정에서 물러난 쭈저우의 한 관리의 경우, 재산으로 따지면 심만삼의 푼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저택은 심청보다 훨씬 으리으리하다. 이를 보면 원·명 교체기의 상인들에게는 신중한 처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사해를 누비며 대규모 장사를 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나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개 상인에 불과한 이들이, 관직에 있으면서 장사를 하는 고관상인들처럼 대놓고 활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강남에서 자유로이 활약하던 이 거상은 그 조심스럽고 신중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경에서 큰일을 당하게 된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남경 천도를 결정하고 성벽 축조자금을 모으려고 하니, 자연히 나라 안팎으로 명성이 자자한 심만삼이 물망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그는 총 축조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뜻 내놓았는데, 이는 조정을 놀라게 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나무가 크면 바람도 거센 법이다. 사태는 이미 심만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그는 또 한 차례 거액을 들여 군대에게 포상까지 했다. 봉건사회에서 상인들은 늘 조정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기 때문에 심만삼의 그런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명나라의 건국 황제였다. 주원장은 이번 일을 심만삼이 재력으로 황제의 콧대를 꺾으려 한 것으로 여기고 크게 진노했다. 황제는 심만삼에게 처음에 참수를 명령했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돌려 원난으로 유배 명령을 내렸고, 이렇게 해서 그는 남쪽의 유배지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한 바탕 난리를 겪고 난 후 심청은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강남의 작은 마을도 오랜 적막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점심때가 되자 우리는 복안교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음식은 매우 담백하고 신선했다. 강과 다리가 바로 보이는 자리에 앉으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

어운 듯한 느낌이었다. 밟그레한 여주인의 얼굴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고운 딸 같은 인상을 풍겼다. 흐르는 물과 다리, 고풍스러운 집들.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에 마음을 빼앗긴 나로서는 떠나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물가에는 사람들이 다리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수채화도 있고, 유화도 있고, 쌍교를 그리는 이도 있고, 다른 것을 그리는 이도 있었다. 저우좡에는 화폭에 담을 만한 다리들이 얼마든지 있다. 좁고 길다란 강 위에 가로 놓인 석교, 그 아래를 지나다니는 작은 배, 그리고 배를 탄 손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석교들만 보더라도 수백 년 간 이어져 온 저우좡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곳 다리들의 반 이상이 원·명·청 세 왕조 때 지어진 유서 깊은 석교들이기 때문이다. 쌍교는 명나라 만력(萬曆)연간에 세운 것으로 다리 하부가 아치형으로 된 원공교(圓拱橋)는 세덕교(世德橋)라 부르고, 방형으로 된 방공교(方孔橋)는 영안교(永安橋)라고 부르는데, 두 다리는 서로 이어져 있다. 쌍교의 위치는 장청 북쪽의 운하가 만나는 지점이며, ‘열쇠 다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원나라 지정(至正) 15년(1355년)에 세워진 북안교는 하부 모양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 북안교의 양끝 네 모서리에는 형식과 높이가 각자 다른 누각들이 서 있는데, 이런 독특한 구조는 강남의 교량 중에서도 유일한 것으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식사를 마친 후 길을 따라 북쪽 장청에 다다랐다. 장청의 원명은 ‘이순당(怡順堂)’이다. 명 중산왕 서달(徐達)의 아우 서봉(徐逢)의 후손이 명 정통(正統)연간에 지은 것으로, 청초에 장씨 성을 가진 이가 이를 구입해서 ‘옥연당(玉燕堂)’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서향으로 지어진 장청은 총 다섯 채의 건물로 이루어졌는데, 정청과 후부 건물은 명대에 지어졌고, 나머지는 청대에 지어졌다. 넓고 밝은 옥연당 내부는 명대 양식을 모방한 홍목가구들로 채워져 있어, 고전적인 우아한 분위기가 흘렀다. 정원 기둥에 있는 남목으로 만든 고돈(鼓墩) 주각(柱脚: 네모기둥으로 생긴 댕돌. 주춧돌 아래에 놓음)은 강남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정청에서 후원으로 통하는 좁다란 통로는 20미터 길이에, 벽에는 여덟 개의 등이 걸려 있었다. 뒤뜰에는 약경(藥徑)이라고 하는 작은 수로가 저택 내부를 흐르고 있었는데, 심만삼이 은을 숨겨놓았던 장소인 은자빈(銀子濱)으로 통한다. 수

로 끝이 바로 심만삼의 저택이다. 약경 중간에는 화강암으로 쌓은 정방형의 연못이 있어, 배가 방향을 틀거나 잠시 정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못가에는 배의 밧줄을 걸기 위한 돌기둥도 보였다. 운하마을을 표현한, “가마는 대문으로 들어가고, 배는 집안을 돌아다닌다”는 말은 바로 이 장치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다. 젊은이들이 장치를 본다면 건물에 나타난 옛 사람들의 치밀함과 기발함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저우좡에는 문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전해진다. 징허도원(澄虛道院) 서쪽, 명 승정(崇禎)연간에 지어진 정풍교 아래에는 덕기주가(德記酒家)라고 하는 오래된 가게가 하나 있다. 1920년, 남사(南社, 신해혁명 전후에 있었던 유명한 문학단체)의 유명한 시인 리우야쯔가 벗들과 함께 이곳에서 네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그때마다 취기가 오른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시를 지었다고 한다. 이들은 가게를 ‘미루(迷樓)’라 부르고, ‘미루곡(迷樓曲)’이라는 시를 읊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로써 화답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미루는 그 때문에 유명해졌다. 오늘날 미루는 고상한 취향의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저우좡 길가의 가게 안에는 갖가지 골동품이 잔뜩 진열되어 있는데, 물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가게 안에는 대부분 옛 상하이 아가씨 그림과 담배 광고가 붙어 있었다. 곱게 단장하고 치파오를 차려 입은 그림 속 미녀들은 과거의 유행과 스타일을 고수한 채, 시끄러운 세상과 멀리 떨어진 조용한 마을, 빗바랜 가게 안에서 쏠살같이 흐르는 세월을 비웃고 있었다.

“날은 저물었는데 고향은 어디인고. 안개 자욱한 강가에서 서글퍼 하노라.”

작가 위치우위는 저우좡을 둘러본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번잡한 도시에서 방황하는 영혼의 상처가 언젠가는 아늑하고 조용한 전원에서 치유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강남의 작은 마을들이 문화적 성격이 더욱 짙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만이 중국 문화가 인성적인 면에서나 지리적인 면에서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우좡은 강남의 여인들처럼 물의 자양분을 듬뿍 받고 사는 마을이다. 강남 제일의 운하마을이라 일컬어지는 만큼, 마을의 생명이자 희망인 ‘물’을 빼놓고는 저우좡을 말할 수 없다. 저우좡이야말로 진정한 ‘물의 마을’이다. 저우좡 하류는 작은 물줄기에 불과하지만, 종횡으로 얽히고 서로 연결되어 우물 정(井)자를 이룬다. 가게들은 강을 따라 늘어서 있고, 집들은 물을 등지고 길을 따라 늘어서 있다. 또한 저우좡 거리는 중국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의 배경으로도,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기에도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저우좡을 떠나려니 서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고향에 돌아왔다 떠날 때마다 느끼는 그런 서운함이었다. 저우좡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그곳이 마치 고향처럼 느껴지고 정감이 갔다. 참으로 짧은 시간에 저우좡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다. 비록 몸은 저우좡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곳에 머물 것이다.

겨울에 저우좡을 찾아가자. 오래된 물의 마을은 하얀 눈 속에 묻힐 때가 가장 아름답기에.....

비 오는 날에 저우좡을 찾아가자. 저우좡의 돌길 위에 내리는 비는 슬픔을 담고 있지 않기에.....

새벽녘에 저우좡을 찾아가자. 작은 마을의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활기가 흘러 넘치기에.....

황혼 무렵 저우좡을 찾아가자. 돌아오는 뱃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잠들 수 있기에.....

저우좡에는 강남 마을의 매력과 특징이 골고루 스며있다. 기후와 풍경, 인문적 특색까지 두루 갖춘 이곳은 훌륭한 관광명소이자, 문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저우좡을 방문한 여러 작가들은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즐기는 것이 이곳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아름다운 경치와 예스럽고 소박한 분위기, 사람의 향기를 사랑하는 이와 함께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근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저우좡과의 마지막 날, 저우좡에 머무는 내내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던 젊은

작가 저우 양에게도 아쉬운 이별을 고했다. 그는 나를 이 아름답고 소박한 세계로 초대했을 뿐 아니라, 강남 여성 특유의 상냥함과 재능으로 나를 감동시켰다. 저우 양의 아름다운 모습은 저우광과 함께 내 기억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저우제루(周潔茹). 여, 1976년 창저우 출생. 열다섯 살에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 장편 소설 「요정의 그물」, 중편 및 단편소설 「우리 뭔가 합시다」·「장수선무(長袖善舞)」·「내겐 오직 너뿐이야」, 수필집 「천사에게 욕심이 생기다」 등을 발표. 중국 최연소 프로작가로 활동 중.



## 7.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미명호에서 해야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서툰 말솜씨 때문인지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과 같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인지 오늘에 와서야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사실대로 말하지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도서관에서 당신이 내 앞에 앉았을 때, 감히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이 순간, 나는 비로소 삭막한 이 세상에서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시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을 옴아매는 능소화 덩굴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당신과 따로 떨어져 스스로 성장하는 목화나 무가 되고 싶었습니다. 줄기와 잎사귀로 당신의 손발을 묶는 부담스런 존재가 되기는 싫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의 눈에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나 홀로 당신을 보러 높은 산을 올랐습니다.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만이 알았고,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는 당신만이 압니다. 별이 빛나는 푸른 밤하늘에 크고 까만 당신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나는 우리 둘만의 하늘에 돌아오지 않을 연을 날렸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점점 당신과 멀어지는 연을 보며, 나는 연실을 움켜쥐듯 나약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 내면의 세계에 끼어들거나 당신의 삶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낸 후 우리가 약속한 그 날에, 당신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조용히 걸어 나와 나를 꼭 안아 줄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한 날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낯선 도시에 혼자 내던져지고,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그 때부터, 항상 나를 집어삼키던 두려움과 그리움을 대신한 것은 용기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떠나자고 호숫가 모래 위에 새긴 언약과 서로를 위해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약속, 그리고 가슴 속에 새겨진 서로의 미소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덧없이 흘렀는지요? 찬바람이 몰아치는 거리에서 소년과 소녀는 따뜻한 군고구마를 서로에게 양보하며, 서로의 언 손을 녹여주려 했었지요. 얼마나 많은 날을 우리는 우연히 마주쳤는지요?

그러니 그대여, 내가 뒤돌아 떠나갈 때 그대는 강해져야 합니다. 눈물 흘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며, 내 마음을 흔들지 말기를…….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홀로 가는 길, 앞으로는 당신에게 기대어 설 수 없지만, 당신에게는 내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치위의 「사랑이여, 돌아오라」 라는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밤하늘에 총총한 별이 맑은 당신 눈을 닮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 8. 주류사회

나처럼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은 중국 내 언론으로부터, 또 스스로도 ‘주류사회’로 편입하지 못했다는 책망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주류사회일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특히 미국인 이웃과 직장 동료들 중에서 소위 주류사회로 진출한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 대다수 미국인들도 이곳 미국에서 몇 대째 평범하게 살아 왔다. 대부분 허리띠를 졸라 매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식들 공부 시킬 수 있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미국에 온 지 겨우 몇 년 밖에 안 되는 중국인들이 기를 쓰고 주류사회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주류사회로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나는가? 주류가 아닌 주변의 삶에도 즐거움은 있다. 그들에게 외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는 과연 주류사회의 삶을 살았는지 감히 묻고 싶어진다. 사회심리학에서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 의식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주류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사회학에서 정의하는 주류사회는 사상과 이념 면에서 사회의 중견 계층을 가리키는 말로, 이들의 가치관이 그 사회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좌우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중국 봉건사회에서는 사대부 계층이 주류사회였던 셈이다. 이들에게는 황제에게 죽음으로 간언을 올릴 수 있는 자격과 그 사회의 규율을 정할 재량권이 있었지만, 후세 사람들의 눈에 이들은 제왕에게 아첨하는 무리일 뿐이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주류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 이들은 막대한 자금과 풍부한 고급 인력으로 세계의 기술과 소비스타일, 유행을 선도한다. 그러나 대선 때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표도 결국 일인당 한 표일 뿐이다. 게다가 전략을 잘못 세웠다간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어쨌든 주류사회는 일종의 관념에 불과하다. 마치 수증기의 물방울처럼 그 존재가 모호해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다. 특히나 미국과 같은 다민족·다문화 사회에서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흑인은 소수 인종이지만, 이들이 의원이나 시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으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주민인 인디언 숫자는 더욱 적지만, 매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들에 관한 사안이 거론된다. 오히려 대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들이 자칫하다가는 인종차별이라고 비난 받을까 봐 언행을 많이 삼가는 편이다.

따라서 해외에 사는 중국인들은 주류사회로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도,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기를 쓸 필요도 없다.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 심성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주류사회로부터도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개나 고양이도 친절하게 맞이하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하물며 사람을 꺼릴 리가 있겠는가? 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현대사회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함부로 주변화하거나 주류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화가 실현될수록 개인이나 집단은 더욱 존중 받는다. 출신보다는 능력이 우선시되는 요즘 세상에서는 계급관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누구를 의식할 것도 없이, 내가 속한 사회가 바로 주류사회인 것이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자신들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미국인들에 비해 재미 화교들이 사는 모습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인들은 재미를 찾아서 뭔가를 하지만, 중국인들은 목표에 도달하는 게 최우선이고, 재미는 사치로 간주한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생활고를 해결하거나 이성을 만나려는 목적 때문이고,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영사관과 가까워질 기회를 얻거나 중국 본토와 장사를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피곤하다. 미국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어딜 가나 눈에 띈다. 동네 도서관에서도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도서관장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자원 봉사자들이다.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자원 봉사자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가장 활발한 기부 활동과 봉사 활동을 벌이는 라이온스 클럽은 매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이브에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저녁 식사와 솜옷, 담요를 제공한다. 미국인들의 이러한 활동도 봉사 정신과 즐거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재미있게 살 수는 없을까? 학교 다닐 때도 재미가 없고, 일하고 결혼하면 더 재미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퇴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반평생을 재미없게 살아 온 사람이 재미가 무엇인지 알거나 할까? 반평생 동안 재미를 놓쳤다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낭비다. 거리의 미국인과 중국인을 보면, 미국인들은 표정도 훨씬 밝고, 농담도 잘 하고, 어깨도 활짝 펴고, 걸음도 힘차다. 이것은 주류 비주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의 문제이다. 즐거운 인생이야말로 건강한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은 동네의 주류사회에 즐겁게 참여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1. 주민위원회

중국인들에게 주민위원회는 낯설지 않다. 주민위원회는 중국의 시(市)정부 기구 중 가장 말단기구에 속한다. 비록 관직은 아니지만, 위원회 주임과 위원의 권한은 결코 작지 않다. 문화혁명 당시에는 집에 다른 지역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손님이 오래 머무르려면 위원회에서 임시 호구를 발급받아야 했다. 또 옆집 개가 우리 닭을 물어 죽였을 때나 우리 집 아이가 남의 아이를 때렸을 때와 같은 각종 사소한 민원들까지도 주민위원회에서 모두 처리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극좌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던 시절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부녀 정치대’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미국에도 주민위원회와 유사한 ‘자가주택 소유자 협회(Home Owner Association)’라는 조직이 있다. 다른 점이라면 이 조직은 지원자들로 구성된 이익단체로 마을 치안과 질서 유지, 부동산 가격안정이 주요 활동 목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 이 같은 ‘주민협회’가 20여 만 개나 되며, 주로 해당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활동한다. 수영장을 짓거나 뒷마당에 농구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모두 협회의 결정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협회의 역할을 우습게 보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들이 미국인들이다. 중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양전닝 선생이 뉴욕 롱아일랜드의 고급 백인 주택단지에 집을 사려 했다가 거절당한 일화를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현지 주민협회에서 신청인 성이 양씨인 신청서는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의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예전에 달라스 교외에 4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Winter Park라는 단지의 주민 협회장을 했던 적이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곳에 몇 십 년째 살고 있는, 그야

말로 토박이였다. 단지에 집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사를 왔고, 어느덧 자녀들은 집 앞의 장성한 가로수처럼 각자 자기 가정을 꾸렸다. 모두들 이곳을 자기 고향이라 여기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겼다. 주민들은 또한 매달 한 차례 지역신문을 만들고, 가끔씩 모여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웃 간에 정을 나누었다.

우리와 같은 중국인에게는 미국에서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것만도 감지덕지할 일이다. 게다가 말도 제대로 안 통하기 때문에 꼬박꼬박 회비 내는 것 외에는 마을의 다른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규정만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인 것이다. 한 번은 위원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좀 억울하다. 당시 나는 쭈저우 원림(園林)을 워낙 좋아해서 뒤뜰에 석가산(石假山)과 정자를 설치했다. 그런데 그게 생각지도 않게 이웃들 눈에 거슬려 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간 것이다.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원회로부터 통지서가 한 장 날아왔다.

“본 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본 위원회가 나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5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인 미국에서 이만한 자유마저도 소시민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알아봤지만 재판을 해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기에, 공들여 쌓은 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무너뜨려야 했다. 이런 일은 비밀비재했다. 마당의 농구대 위치가 잘못 되어도,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공차기를 해도 반드시 누군가 지적을 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적의 내부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위원회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도대체 위원회가 사사건건 나와 부딪히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해 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자진해서 후보 등록을 했다. 당연히 선거에서는 표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집집마다 다니며 인사도 하고, 마을 일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여 나갔다. 당시 마을 주요 도로에는 외부 차량들이 지나치게 많이 다니고, 더군다나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동네가 소음과 안전 문제로 골

치를 앓고 있었다.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청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침 경찰서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던 내가 위원회를 대신해서 관련 당국과 열심히 접촉한 결과, 도로변에 콘크리트 분리벽이 설치되고 도로 입구에는 제한속도 표지판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난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었고, 위원회 회계를 시작으로 결국에는 회장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동네 유지 업무를 관리용역 업체에 위탁했다. 업체의 역할은 마을 조례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집 앞이나 공동 잔디밭에 빨래를 널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 심지어는 개인 주차장에서 엔진 오일을 가는 행위까지도 단속을 했다.

회장이 되자마자 나는 우선 쓰레기처리 업체를 교체했다. 그 업체는 비록 관리 업체와 호흡이 잘 맞았지만, 처리 횟수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추수감사절 즈음에는 마을 골프장에서 파티를 열어, 바비큐와 핫도그, 음료 등을 준비하고, 십여 개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마을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물론 비용은 집집마다 매달 내는 적지 않은 회비에서 충당했다.

한 번은 중국 출신 주민이 앞마당 잔디를 그대로 방치하고, 뒷마당에는 채소까지 기른 적이 있었는데, 보다 못한 주민들이 나서서 시정을 요구했다. 들은 체도 안 하던 중국인은 결국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 벌금을 물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집들이 모두 1층짜리 건물로 된 우리 동네에서 한 주민이 위원회의 허가 없이 시청 관할 부서에만 신고를 하고 자신의 집을 2층으로 개조했다. 그리고 법원에 고소되어 6개월 소송 끝에 결국 2층을 다시 헐어야 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타이완에서 상제교(上帝教) 신도들이 대거 우리 동네로 들어왔다. 'Garland'라는 동네 이름 때문에 주교는 이곳을 '상제의 땅'이라 부르면서 여기서 상제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상제를 못 만나면 자살을 택하겠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황당해 했고, 현지 경찰과 FBI, 수십 개의 방송국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당연히 마을 대표이자 중국인인 내가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 연일 계속되는 주교의 설교와 주민들의 항의,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세례에 몇 날 며칠을 뜬눈으로 지내다시피 한 나는 심신이 다 피폐해졌다.

너무나 바빠서 아이 숙제를 봐줄 시간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회사 일도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다. 이렇게까지 시달리고 나니, 협회장 일에도 신물이 났다. 그래서 이듬해 선거 때 이사회의 연임 요청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책을 사양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실컷 고생했고, 주민을 위한 봉사는 이것으로 족하니 좀더 여력 있는 사람이 맡는 게 좋겠다는 게 내가 내세운 거절 사유였다.

## 2. 학부모회

나는 학부모 둘과 함께 매주 한 차례씩 3학년 한 학급에서 수학수업을 하고 있다. 교사가 문제지를 준비하면 내가 지도를 하는 식이다. 이런 학습지도는 학부모교사 협회 (Parent Teacher Association, PTA 혹은 PTO) 활동의 일환이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다들 알겠지만, 자녀가 유치원(Preschool)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해마다 개학 시즌이 되면 가정통신문과 함께 PTA 가입신청서가 날아온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PTA에 가입한 학부모가 80%를 넘는다. 학교와 학부모회는 연합 이사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각종 학교 활동을 관리한다. PTA의 계획에 따라 학부모들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학급 및 전교 활동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학부모 정기회의에서는 학부모 활동을 평가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PTA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국 최대의 풀뿌리 자원봉사기구로, 전미 50개 주와 콜롬비아 및 미국령 도서 지역, 태평양 및 유럽의 미군 주둔 지역에 약 65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규정상 발기인 3명(대표, 이사, 회계)과 회원 1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전미 PTA는 1897년에 창립되었는데,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이었던 앨리스 버니 (Alice Birney)는 남편을 두 번이나 잃은 여성 노동자였다. 그 당시에는 여성에게 선거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아동의 교육과 건강, 안전 문제는 종종 뒷전으로 밀려났다. 앨리스 여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아이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어머니들이 사회로 나서 아동의 성장과 관련된 정책 제정과 관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천여 명의 부모와 교사, 변호사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PTA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 세기 동안의 노력 끝에 PTA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동에 관한 의제가 미국 정당과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된 것이다. 2003년 PTA 통계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부모 93%가 당시 대선후보자의 교육 정책이 자신의 투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1925년 아동 예방접종서비스 실시, 1946년부터 지금까지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학교급식 제공, 마을 폭력 방지 작업 전개, 알코올·마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아동의 존엄성과 개성을 인정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아동 성교육 지도방안 마련 등의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학부모들은 보조교사 역할 외에도 수업 방식을 활성화하고 수학여행 같은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과목을 전담하거나 보조한다. 그리고 소수민족 출신 학부모들이 교사의 초청이나 PTA의 계획에 따라 한 학년 및 전체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기도 한다. PTA는 또한 체육대회나 문화제, 명절행사 같은 대규모 활동도 지원한다. 학부모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전단을 제작·인쇄·배포하고, 행사 장소를 꾸미고, 구체적인 서비스나 행사장의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한다. 평소에는 학교 점심 조리과 판매, 쉬는 시간 운동장 안전질서 유지,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도 학부모들이 적극 담당한다. 그 외에 매주마다 통신문을 제작, 인쇄, 배포하는 일도 PTA 학부모들의 몫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교육비 삭감으로 인해, 현재 PTA는 과거에는 정부가 해 오던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많은 PTA가 해당 학교의 기금 마련을 주요 업무로 삼는다. 전국 PTA 2003년 통계에 따르면, 학부모 79%가 매년 자녀들의 학교에 기부를 하는데, 이 기금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던 종이, 청소 도구, 차량, 실습 도구, 교사 급여, 수업 교재, 음악·미술 수업 등에 쓰이고 있다. 학부모 39%가 자녀의 학급에 1년에 100달러 이상 기부를 하고, 300달러 이상 기부하는 학부모도 11%에 달했다.

각 학교의 PTA는 해당 학교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매년 회비를 걷고, 회원들의 기부를 장려하고, 회원들의 친구나 회사 동료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지정한 음식점 및 가게의 상품권을 학부모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학부모들이 해당 가게에서 소비를 하

면 수익 일부가 학교로 돌아가도록 한다. 또 학교 마크가 찍힌 옷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사진관을 불러 학생들의 단체사진을 찍은 후, 이를 명분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소정의 회비를 걷기도 한다. PTA에서는 또한 교내 행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끝말잇기 대회나 달리기 대회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단어를 맞추거나 달리기를 완주하면 얼마를 내겠다고 미리 종이에 써서 내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 결과에 따라 학부모들은 해당 금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학교에 기부하는 식이다.

당연히 PTA의 자금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세무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상급 PTA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일일이 보고한다. 또한 각 학교 PTA는 매년 새 임원을 선출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회원 신청을 새로 받고 있다.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PTA 발기인이나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학부모들에게 정치 참여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PTA 회원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쌓은 조직 관리와 서비스에 관한 경험은 이후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여러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주(州)내 우수학교상을 받았고, 학생들의 성적도 해마다 오르고 있다.

1. 말쑥꾸러기이지만 매우 똑똑한 아이가 있었는데, 방과 후 집에 가면 돌봐줄 이가 없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3세 이하 아동을 집에 혼자 두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 교육청과 시청을 찾아가 협상을 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아 YMCA와 사설 탁아소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나는 부시장과 시 정책과장을 찾아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이고 골프도 함께 치러 다녔다. 그러면서 학교 근처의 시립공원 관리국 직원들이 아이들을 돌볼 것을 건의했다. 그곳 직원들은 아침 일찍 공원 청소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이 일은 결국 성사되었다.

2. 자녀의 담임교사를 탐탁지 않게 여긴 한 중국인 학부모는 이와 관련해 학교에 몇 차례 탄원을 했으나 소용이 없자 결국에는 우리를 찾아왔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학부모의 태도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그 학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 PTA 이사들은 학부모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했고, 우리는 이를 가지고 교장을 찾아가 얘기했다. 결국 그 학부모의 자녀는 반을 옮길 수 있었다.
3. 우리는 한 서점의 학습서를 중간에서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좀더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서점 측에서는 우리가 시장에게 부탁해서 자기네 서점을 방문하도록 해주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주 상원의원으로 일하는 한 학부모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결국 시장이 두 시간 가량 서점을 방문했다. 이로써 우리는 몇 천 달러를 더 거두어들이 수 있었다.

### 3. 파출소

미국의 경찰 제도는 중국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 미국은 연방제 시행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는 경찰을 관리하는 전국 차원의 기구도, 통합적인 경찰 시스템도 없다. 각 주와 시 경찰은 경찰 뱃지와 유니폼, 경찰차의 마크도 저마다 다르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 지방의 경찰기구 사이에는 소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직 규모도 제 각각이어서 경찰관이 3만 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1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미국 경찰 기구는 연방 경찰, 주 경찰, 시 경찰 세 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서 연방 경찰은 연방법 위반과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안을 다루는데, 대통령 암살·은행 강도·비행기 납치·밀수·탈세 등은 모두 연방 사법기관이 관할하는 대표적 사안들이다. 주 경찰의 주요 기능은 교통법규나 주법을 위반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경찰은 바로 시 경찰로, 이들은 시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 국가의 법 집행 및 질서 유지, 사

회 안전 보장 기능의 90%를 이들이 담당한다.

미국 경찰은 업무가 정말 많다. 여기에는 중국 경찰이 담당하는 모든 업무는 물론이고, 중국 도로위원회, 각 기관 노조 및 당위원회 서기 업무의 일부도 포함된다. 차가 고장 났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미아가 발생했을 때, 부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았을 때와 같이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다. 예전에 중국인들이 곧잘 “당신네 기관장한테 알리겠소!”라고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경찰에 신고 하겠소”라는 말을 자주 한다. 미국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경찰들이 시민들의 세금을 녹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경찰을 찾는다.

영화에 나오는 미국 경찰은 모두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무장을 하고, 무전기와 경찰봉을 손에 든 위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경찰들은 자비로 총을 마련해야 하고, 장비 무게는 거의 20파운드나 된다. 게다가 잦은 연장 근무에 급여는 쥐꼬리만하고, 초봉은 3만 위안 수준이다. 어디 그뿐이라. 대학에서 10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경찰학교에서 훈련도 받아야 한다. 경비 시 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지고, 언제나 감원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치안 상태가 안 좋으면 연장 근무를 해야 하고, 치안 상태가 양호하면 감원 위협에 시달려야 하고, 체중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안 되고..... 학교나 도로 공사장에서 보게 되는 경찰들은 대부분 휴무를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이다. 가장 숭고한 직업이면서도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직업이 바로 경찰이다.

경찰은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다. 미국의 위험 직종 순위에서 경찰의 순위는 해마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건에서도 경찰이 목숨을 잃을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고속도로에서 급히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새 뒤따라오던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다. 이유는 과속이었다. 차를 한 쪽에 세우니 경찰이 뒤에서 다가와 창문에 대고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면허증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문을 열고 나와 주머니를 뒤졌다. 느릿한 말씨와는 달리 경찰의 행동은 재빨랐다. 경찰은 단 몇 초 만에 나를 제압하고 내 손에 수갑을 채운

다음, 차를 향해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내 몸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억울해 하며 면허증을 꺼내려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내 뒷주머니에서 면허증을 꺼낸 뒤 무전기에 대고 내 이름과 면허증 번호를 불렀다. 몇 분 후 내 신원이 확인되자 경찰은 그제야 수갑을 풀어 주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 달 동료 하나가 이 도로에서 숨졌거든요.”

이날 나는 그렇게 미국 경찰과 가까이서 첫 대면을 했다.

통계에 따르면 1993년에서 2003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이틀에 한 명꼴로 경찰이 희생을 당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찰들은 임무 수행 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하여 불필요한 희생을 최대한 막는다. 순찰을 돌던 경찰이 도주 중인 범인을 추격하라는 본부 명령을 받게 된다면, 그는 신속히 차를 몰고 범인이 숨을 만한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범인을 발견하면 바로 덮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몸을 숨기고 범인을 향해 “무기를 버리고, 손들고 밖으로 나오라”는 경고를 외친다. 지원 병력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범인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범인의 총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몸을 숨긴 장소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범인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을 경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범인을 향해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상시에 미국 경찰은 사정거리가 비교적 긴 반자동 소총 한 자루, 탄약 장전기 두 개, 접이식 경찰봉, 후추가루 분사기, 수갑 등을 소지한다. 일부 경찰들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두 자루의 권총을 소지할 수 있다. 이 무기들은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범죄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는 운전을 할 때 경찰이 전방이나 후방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차를 세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차를 세울 만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즉시 차를 세워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움직이지 말고 차에 가만히 앉은 채 두 손은 계기판에 올려놓고 있다가, 경찰이 다가와서 면허증을 제시하라든지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는 중국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중국에서는 보통 차를 세우자마자 얼른 내려서 경찰한테 달려가 굽실거리는데,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머

리통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대 과장이 아니다. 미국은 개인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인데다 경찰들은 매일같이 온갖 종류의 나쁜 사람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극도로 긴장된 근무환경에서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거나 혹은 차를 세운 후 차 안을 이리저리 뒤지면 경찰은 자동적으로 운전자가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운전자가 한술 더 떠서 그냥 차를 몰고 돌진하려 한다면 경찰은 선제공격 차원에서 그를 향해 총을 발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찰에 의해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일반인이 실수로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여지는 있다. 다만 이 만회라는 것도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일 때는 불가능하고, 사후에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무조건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설령 벌금을 물리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서 경찰을 보내라.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일의 경위를 꼼꼼이 돌이켜본 다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라. 예를 들어 과속 딱지를 끊었을 경우, 그곳이 내리막길은 아니었는지, 차가 저절로 속도가 붙은 것은 아닌지, 속도 제한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지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라. 만약 증거를 찾지 못하겠으면 순순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벌금 통지서에 있는, 벌금 부과에 불복하고 법정에 상소하겠다는 항목에 표시를 한 후, 통지서를 부치면 된다. 그러면 며칠 안에 경찰서에서 법원 출두 날짜가 적힌 통지서가 날아온다.

경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찰의 약 5%는 의무경찰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6개월에서 1년간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후 급여를 받지 않고 의경으로 일하게 된다. 내가 의경이 된 것이 경찰과의 두 번째 대면이었다.

다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일곱 살짜리 꼬마 크리스의 꿈은 이 다음에 커서 경찰이 되는 것이다. 어린 크리스의 눈에 비친 경찰은 권위와 권력, 정의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혈액암을 앓고 있는 크리스에게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경찰 토미와 톤은 크리스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크리스에게 경찰 유니폼을 입히고 배지를 달아 주고 거리를 함께 순찰하기로 했다. 실제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똑같이.

1980년 4월 29일은 크리스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이날 아침, 헬기 한 대가 병원에 착륙하더니 론이 그 안에서 직접 나와 크리스를 맞이했다. 크리스를 태운 헬기는 피닉스 상공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경찰서에 그들을 내려놓았다. 그 곳에는 경찰차 세 대와 프랭크 경관이 운전하는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크리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크리스에게는 애리조나주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명예경찰이 되는 영광이 주어졌다. 그 다음날 경찰 몇 명은 특별 제작한 정식 경찰 유니폼을 병세가 악화된 크리스에게로 보냈다. 크리스는 자신이 잘 볼 수 있게 유니폼은 병실 창문에 걸고, 경찰 헬멧과 모자는 테이블 위에 놓아달라고 했고, 자신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에 뿌듯해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크리스의 장례식장에서 스콧 경관과 프랭크 경관은 크리스의 꿈이 이루어졌던 감동의 순간을 회상하며, 병을 앓고 있는 더 많은 어린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서 ‘희망 기금(Make a Wish Foundation)’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기금을 설립한 사람들은 모두 직업이 있었고,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프랭크는 퇴근 후에 경비 일을 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일하는 백화점의 매니저는 프랭크로부터 기금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기금 모금 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그때는 아직 은행계좌도 없던 상태였다. 매니저는 백화점 내에 있는 지점 은행에서 기금회 계좌를 개설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지갑에서 15달러를 꺼냈다. 그것이 기금회가 받은 첫 번째 기부금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현지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는 창립자를 찾아와 인터뷰했고, 이로써 기금회는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1981년 3월, 그 동안 모인 2천 달러의 기부금으로 한 어린이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백혈병을 앓고 있던 소년 프랭크의 세 가지 소원은 소방관이 되는 것과 열기구를 타는 것, 디즈니랜드에 가는 것이었다. 프랭크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 지 망설이자, 기금회에서는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기로 했다.

연락을 받은 피닉스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를 프랭크에게 보냈고, 프랭크는 피닉스 시 최초의 명예소방관이 되어 정식 유니폼은 물론 황색 방화복을 입고 헬멧을 쓸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소방차 사이렌을 울리고 75파운드의 소방 호스로 물을 뿌

렀던 경험은 프랭크가 원하던 것 이상이었다. 그 다음으로 기금회는 열기구 회사에 연락해 기구 조종사와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사장은 흔쾌히 동의하며 프랭크를 위해 기구를 띄워 주었다. 프랭크 경관의 연락을 받은 디즈니랜드에서도 꼬마 프랭크에게 특별한 기념일을 선사하기로 했다. 기금회와 디즈니랜드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후 20년 동안, 아이들의 소원 중 디즈니를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그 때마다 디즈니는 기금회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온 프랭크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프랭크가 3층 병실에 누워 있을 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다. 창문을 열어 보니 그 주인공은 피닉스 시의 소방관 다섯 명이였다. 소방차를 병동 앞에 세운 채 사다리로 창문까지 올라온 이들을 보자 프랭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채 세상을 떠났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에게는 주사바늘과 약, 링거와 씨름하는 것도 벅차지만, 자신을 쳐다보는 주변의 이상한 눈초리도 견디기 힘들다. 이런 아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을까? 희망 기금은 바로 이 점에 관심을 가진다. 아픈 아이들에게는 꿈을 이룬다는 것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위로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은 아이들이 이를 통해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다는 점이다. 기금회 통계에 따르면 도움을 받은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의학계의 예상을 뒤집고 현재까지 살아남았다.

지금까지 20년이 흐르는 동안 피닉스 희망 기금([www.wish.org](http://www.wish.org))은 어린 환자들의 꿈을 이뤄주는 세계 최대의 자선기구로 성장했다. 2003년 말까지 전세계 12만 3천7백 만 명의 어린이 환자가 기금회의 도움으로 꿈을 이루었다. 2003년 재무 보고에 따르면 아동 환자 한 명당 3500달러에서 890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었다. 현재 전세계 2만 8천여 명의 회원이 기금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 디즈니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 찰스 왕(Charles Wang)을 비롯한 수많은 개인들도 기금 후원자로 나서고 있다.

경찰들이 세운 이 같은 자선기금이 미국에는 상당히 많다. 어린 환자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찰협회 독서회'라든가 학교 내 마약반입을 방지하기 위

한 ‘마약방지 협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느 날 희망기금으로부터 후원자가 되어 달라는 초청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크게 감동 받은 나는, 기금회 회원이 됨과 동시에 의무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의경이 되는 것은 기금회 회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찰 훈련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된다. 첫째는 안전배경 조사로 과거에 범죄나 마약 복용, 음주사건 경력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둘째는 경찰학교에서 6개월 간 초보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시 경찰서에는 자체 훈련소가 있다. 특히 규모가 비교적 큰 시의 경찰서나 주 경찰서는 대부분 이런 훈련소가 있고, 규모가 작은 시의 경우는 해당 주 경찰서 내에 있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신입 경찰들은 3주에서 6개월간 기능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기간 동안에는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의 상세 조항, 기관 내부규정과 절차 등에 대해 공부하고, 각종 무기 사용과 보관방법, 체포 및 격투, 현장조사 및 샘플링, 운전, 추적, 촬영 및 녹음 등 경찰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기술도 함께 익힌다. 이 교육 과정을 모두 이행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정식 경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경은 무장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거리로 나가 근무를 하거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의경의 주된 역할은 경찰과 시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 간의 협회 설립을 지원하는 일, 파출소 관할 구역 내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동네 치안 상황을 보고하는 일 등이다. 그래서 대개는 범죄예방과나 자료과 등에 배치가 된다. 나는 주로 범죄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을 했는데, 그날그날의 범죄기록들을 시 경찰서로 보내 대조 작업을 거친 뒤 내부 사이트에 올렸다. 어느 날은 호기심에 중국인 범죄 기록이 있는지를 찾아본 결과, 두 건을 발견했다.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중국에서 유학 온 한 여학생으로, 옷 가게에서 새 브래지어를 착용한 뒤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오려다 경비한테 붙들려 경찰에 신고 되었다. 그 여학생은 그 속옷이 다른 곳에서 산 것이라고 우겼다. 비록 라벨은 떼어낸 뒤였지만, 그녀가 새 속옷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간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혀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CCTV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던 그녀는 그 일로 인해 벌금형은 물론 하루 동안 감방 신세를 져야 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 중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다.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람도 자동차 정기 검사 후 엔진오일 교환 비용이 아까워 자신이 직접 오일을 사서 교환을 했다. 이렇게 하면 10달러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오일을 흘려 길바닥에 검은 기름 자국을 남기고 말았다. 이를 본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15분 후에 이 남자는 환경오염죄로 경찰차에 실려 가는 신세가 되었다. 법원에서는 천 달러의 벌금형 외에 열흘 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서 마을의 쓰레기를 치우도록 했다. 10달러를 아끼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서에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의경도 거리로 순찰을 나선다. 나 역시도 순찰을 여러 차례 돌아 봤다. 미국 경찰은 보통 경찰차로 순찰을 도는데, 차 한 대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조를 이뤄 자기 담당 구역을 순찰한다. 그러다 사건이 생기면 출동 명령에 따라 빠르면 1~2분 안에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다. 한 번은 로버트 경장과 야간 순찰을 돌다가 좀도둑 한 명을 구치소로 데려가자마자 출동 명령을 받게 되었다. 로버트 경장은 두말 않고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위의 차들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는 트럭 한 대가 뒤집어져 세 개 차선을 모두 가로막고 있었다. 내가 할 일은 차 안에서 도로 봉쇄용 발광 막대를 꺼내는 것이었다. 막대 길이는 30센티미터 정도이고, 끝 부분에 불을 붙이면 약 7센티 가량의 불꽃이 뿜어져 나와 한참 동안 붉은 빛을 발산한다. 나는 사고 현장 주변에 발광 막대 7~8개를 세워 경계를 만들었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고속도로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량이 길게 늘어섰고, 그 뒤로도 차가 계속해서 밀려들었다. 도로 한 줄로 그 많은 차량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천군만마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교통정리가 조금만 잘못돼도 금방 아수라장이 될 판이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차량 한 대가 멈춰 섰다. 창 밖으로 머리를 내민 운전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물었다.

“곧장 가세요.”

한가하게 길 안내까지 할 여유가 없었기에 간단히 대답했다.

“그 다음엔요?”

“그냥 계속 가세요!”

목청을 높여 대답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조금해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교통 위반 통지서를 꺼내면서 소리쳤다.

“딱지 끊기 싫으면 당장 출발하세요!”

운전자는 그제야 차를 움직였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서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었다. 얼른 차를 세우고 도와주려고 그 쪽으로 가보니, 경찰관이 한 중국인에게 위반 통지서를 내밀고 있었고, 그 중국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통지서를 받아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딱지를 끊은 사람이 저럴 리는 없겠고, 그 중국인은 분명 자기가 받은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먼저 경찰관에게 인사를 한 다음, 중국인에게 무슨 일인지 중국어로 물었다. 사정은 이랬다. 방금 500달러를 주고 중고차를 샀는데,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났다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견인차가 와서 정비소까지 견인해 가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중간에 차를 세워 두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것이다. 그러자 바로 경찰차가 왔다고 한다. 난 그 중국인에게 지금 손에 든 게 뭐냐고 물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 경찰관한테서 받은 건데, 견인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증명서 같은 거 아닌가요?”

“방금 전 경찰이 한 말, 잘 못 알아 들으셨죠? 그건 범칙금 고지서예요. 110달러군요. 아시겠어요?”

중국인은 당황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요? 이게……”

얼마나 속상했을까? 500달러를 주고 그 고물 자동차를 산 걸 보면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닐 텐데, 벌금에다 수리비까지 날리게 됐으니 어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내가 다 속이 상했다.

“걱정 마세요. 가서 한 번 알아볼 테니.”

이건 분명 견인차 운전자의 책임이다. 이 중국인이 견인 비용을 못 낼 것처럼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손님을 바람맞힌 것이다. 덕분에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이 중국인은 벌금까지 물게 생겼다. 경찰관을 한 쪽으로 데려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자, 경찰이 상황을 설명했다. 아까 그 중국인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말을 제

대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예스’라고만 하니까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벌금을 물렸다는 것이다. 중국인에게서 견인회사 명함을 건네받은 나는 무전기로 경찰서에 연락해 문제의 견인차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게는 벌금 고지서를 거둬 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회사의 견인차를 불렀다. 고지서가 취소되자, 중국인은 내가 아니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 했으며 연신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앞으로는 조심하시고요, 생활 영어 정도는 익혀 두시는 게 좋아요. 중국인이 아니었으면 나도 그냥 모른 채 했을 겁니다.”

의경을 하는 동안 수색과 체포 작업도 했었는데, 이런 일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법률 행위와 관련된 일에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신체·가택·서류·재산은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침해될 수 없다. 유력한 근거가 뒷받침되거나 선서나 선언에 의해 보장된 경우, 수색 장소 및 체포 대상, 압수 물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그 유명한 ‘마프 사건’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

1957년 5월 어느 날, 경찰은 당시 폭발 사건 용의자가 돌리 마프(Dolree Mapp)의 집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클리블랜드 경찰 셋이 마프 부인의 집을 찾아가 집안을 수색하려 했다. 마프는 수색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세 시간 후 강제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경찰 일곱 명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외설 간행물이 든 상자를 찾아냈다. 마프는 이 간행물 때문에 결국 체포되었다. 그러나 경찰에게 처음부터 수색 영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그는 연방 최고법원에 상소를 했다. 1961년 6월, 연방 법원은 마프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경찰이 마프의 법적 권리를 짓밟고 불법으로 가택 수색을 벌였기 때문에 마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작년 어느 날, 피닉스 경찰서에 익명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무개 집 뒷마당에서 젊은 남자 셋이서 바비큐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였다. 몇 분 후 경찰 두 명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과연 고등학생 셋이 거기에 있었다. 경찰은 그들에게 손을 들라고 명령하고 몸을 수색해서

총 한 자루를 찾아냈다. 주법에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무기 소지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 측 변호사는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택에 들어가 시민을 수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4조에서는 시민에 대한 법 집행자의 부당한 수색을 금하고 있으며, 익명의 제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수사가 위법이라면, 이 과정에서 나온 압수품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었다. 변호사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에 동의했다.

미국에서 경찰은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총과 경찰봉, 수갑을 휴대하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용의자를 저지할 권리가 있고, 필요하다면 몸수색도 가능하다. 길이나 공공장소에서는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소한 일로도 수갑을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장소가 개인의 집이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가택 수사는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당사자가 미국시민일 경우, 영장이 없으면 이들에 대한 수색은 물론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에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화가 난 집주인이 나가라고 소리친다면 그대로 물러나야 한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여성 대법관 긴즈버그(Ginsberg)는 최고법원을 대표해서 판결문을 낭독할 때 다음과 같이 일축했다.

“만약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경찰이 아무 때나 수사를 하도록 허락한다면, 개인의 안전은 위협받을 것이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에도 반드시 제약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형적 관념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볼 때, 경찰은 무기를 찾아내 잠재적인 범죄사건을 방지함으로써 사실상 사회 안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임무의 성공 여부만 놓고 경찰 권력의 범위를 규정한다면, 경찰 권력의 남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국 경찰이 신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소송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그 이유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약하지 않으면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폭력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용감히 나서서 범인과 싸우라고 권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게 연락할 것을 권장하는 정부 메시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치안은 당연히 경찰 몫이기 때문에, 치안 상태가 불안하면 경찰이 욕을 먹는다. 그러나 나쁜 사람이 자기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닐 리도 없거니와 경찰은 경찰대로 임무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간혹 선량한 시민과 부딪히는 경우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정부 권력이 확대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 권력 남용이라고 즉각 항의하고 나선다. 시민들은 길 물어볼 때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경찰과 접촉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과 부딪히게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끊게 되었을 때다. 속도위반으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 대개는 순순히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다. 그렇지만 경찰의 판단이 늘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고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는 정부 행정기관의 하나인 경찰이 당사자의 과속 행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이에 항변할 수 있으며, ○○월 ○○일 ○○시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법원은 정부의 사법기관으로 경찰이 속한 행정기관과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이라는 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911을 누르면 언제나 경찰이 달려온다. 911 구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최대한 빨리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구조 요청 후 10분이 지나도 경찰이 오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경찰서에서 지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고용한 경찰이므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찰들은 시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늘 친절히 나서며,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디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에서건 불친절하거나 싫은 내색을 했다가는 차별죄로 법원에 고소당할 수도 있다. 시민들은 아무

때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은 함부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제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같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경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경찰 기록일지에 기록된 인상 깊은 내용이다.

2001년, 애리조나대학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 양 씨 부부가 자신들의 집에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 후, 자고 있던 여섯 살짜리 딸이 깨어나 보니 아빠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911에 신고 전화를 했다.

소녀: .....(울음)

신고 접수원(이하 접수원): (화면에 찍힌 번호를 보며) 주소가 XX가 2575 번지인가요?

소녀: .....(울음)

접수원: 자, 진정하시고, 뭘 도와드릴까요?

소녀: 아빠가 죽은 거 같아요.

접수원: 무슨 일이니?

소녀: 아빠가 계단 위에 있어요.

접수원: 지금 있는 곳이 어디니? 주소를 말해 줄래?

소녀: 집이요.

접수원: XX가 2575 번지가 맞니?

소녀: 몰라요.

접수원: 모른다고? 몇 살이지?

소녀: 여섯 살이요.

접수원: 그래,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소녀: 아빠는.....(울음)죽었어요.

접수원: 죽었어?

소녀: 네. 살려주세요. (울음)

접수원: 그래, 울지 말고, 아빠가 지금도 숨 쉬고 계시니?

소녀: 몰라요.

접수원: 금방 사람 보내줄 테니까 전화 끊지 말고 있어, 알았지?  
소녀: .....  
접수원: 이름이 뭐지?  
소녀: 엘리요.  
접수원: 너희 아파트가 몇 호인지 아니?  
소녀: 몰라요.  
접수원: 아빠는 몇 살이시니?  
소녀: 몰라요.  
접수원: 아빠가 어떻게 되신 거니?  
소녀: 온몸이 전부 피예요.  
접수원: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시지?  
소녀: 계단 중간예요.  
접수원: 계단이 집 안에 있니, 아니면 집 밖에 있니?  
소녀: 집 안에요.  
접수원: 무슨 일인지 알겠니?  
소녀: 몰라요. 난 자고 있었어요.  
접수원: 그래, 아빠가 아직 안 깨어나시는구나. 아빠가 너랑 얘기 할 수 있  
니?  
소녀: 아니요.  
접수원: 엄마는 어디 계시니?  
소녀: 몰라요.  
접수원: 그래, 엘리. 전화 끊지 말고, 가서 현관문 잠겼는지 보고 올래? 그리  
고 아저씨들이 가면 문 열어 줄 수 있니?  
소녀: 밑에 내려가기 무서워요.  
접수원: 그래, 알았다.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저씨들 소리 들리니?  
소녀: 못 들었어요.  
접수원: 나랑 계속 얘기하자. 전화 끊지 말고. 알았지?  
소녀: 네.  
접수원: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니?

소 녀: 네 들려요.

접 수 원: 만약 누가 세계 문을 두드리면 겁내지 말아라. 알았지?

소 녀: 네.

접 수 원: 아저씨들이 가서 아빠를 도와줄 거야. 구조 대원들이란다.

소 녀: 아래 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려요.

접 수 원: 겁내지 말아. 널 도와주러 온 거야.

소 녀: 알았어요.

접 수 원: 엘리, 참 착하구나. 어떻게 911에 전화할 생각을 다 했니?

소 녀: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접 수 원: 그래, 아주 잘했다.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구나.

소방대원: 어디 다친 데 없니?

소 녀: 없어요.

접 수 원: 지금 누구랑 같이 있니?

소 녀: 네.

접 수 원: 소방관 아저씨니?

소 녀: 네.

접 수 원: 좋아. 잘 하고 있구나.

소방대원: 여보세요? 여기는 소방대입니다.

접 수 원: 지금 아이랑 같이 있나요? .....잘 됐군요.

소방대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바꿔 드리지요.

경 찰: 할리건 경관입니다.

접 수 원: 여기는 911 긴급센터입니다.

경 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접 수 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 찰: 안녕히 계십시오.

## 9. 아버지가 된다는 것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 작은 생명이 막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순간, 내가 그 생명의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라면 누구나 그 생명이 세상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의적인 중압감 덕분에 우리는 서서히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간다.

내가 아들을 처음 보았을 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가늘게 뜬 눈으로 체념한 듯 차디찬 세상을 쳐다보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왜, 왜 날 이렇게 만들었나요?”라고 묻는 것만 같았다.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내는 심한 출혈로 생명이 위독하고, 아이는 신생아 폐렴을 앓기 시작했다. 의사가 위급상황을 알리는 통지서 두 장을 쥐어주는 데, 그 다음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이 엄마와는 면회가 금지되었다. 내 임무는 아버지 노릇이었고, 나는 밤낮 쉬지 않고 돌아가는 산소호흡기 소리 속에서 아들 앞을 지켰다. 계속해서 교체되는 링거를 주시하면서, 고통스러운 듯한 아들의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기관지에 쌓인 가래가 빠져 나오도록 계속해서 아이의 등을 토닥거렸다. 한바탕 기침을 토해낸 아들은 잠시 후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여느 건강한 아기들처럼.....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기침은 다시 심해졌고, 가래로 기도가 막혀 응급조치를 취하는 횟수도 늘어갔다. 급기야 가래 흡입기까지 동원되었다. 가래를 빼내기 위해 그 어린 몸에 꽂힌 긴긴 호스를 보고 있자니 아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가래가 진해졌는데, 좋아지는 거죠?”

‘예’라는 대답을 기대했지만, 의사는 묵묵부답이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소변량이 줄어들었고, 영양액을 주입해도 토해내기 일쑤였다. 가까스로 병상에서 일어난 아이 엄마는 이를 보고 오열했다. 그리고 도로 몸져눕더니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그 후로 남은 날들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가엾은 아들은 침대에 누워 스스로 웃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날 밤, 갑자기 아이의 온몸에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하더니, 몸이 뒤로 활짝 젖혀졌다. 나는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아이의 옷을 풀어 헤치고 차가운 물수건을 머리에 얹어 열을 식혔다. 야윌 대로 아위어서 두 눈만 쾅해진 아이는 필사적으로 자기를 안고 있는 남자를 쳐다보며, 눈빛으로 말했다. 난 죽고 싶지 않아요.....살려주세요.....

나는 아이가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네 아빠란다. 얼른 자려무나. 아빠 품속이 바로 천국이란다.”

순간 아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홀로 지내는 많은 날들을 아들의 그 미소를 떠올리며 견뎌냈다. 아들의 미소가 아니었다라면 그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버텼을까?

하늘의 동정심 덕분인지 아니면 아들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인지 모르지만, 아이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웃는 날이 많아지고, 기침이 줄어들었다. 드디어 죽음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온 것이다. 아들은 세상에 오자마자 첫 열흘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그 아들에게는 작은 오색공이 최고의 선물이었고, 그 힘든 나날을 보내던 내게는 「레미제라블」이 정신적 위안이었다.

아들은 이제 다섯 살, 건강한 개구쟁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기를 안아 주는 것이 제일 좋단다.

## 10. 여자 친구

여자 친구란?

여자 친구란, 내가 화가 났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 기쁘게 해주는 사람,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전혀 할 줄 모르는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여자 친구란, 내가 한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겨 놓고서, 그 약속을 후회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사람.

여자 친구란, 내 곁에서 함께 빗속을 거닐며 그 안에서 사라져간 무수한 생명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내 몸이 상할까 걱정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요.”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

여자 친구란,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사랑하겠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 사람.

여자 친구란, 부드러운 불빛 아래서 영롱한 글로 날 묘사하고, 날 위한 시를 쓰는 사람.

여자 친구란, 길을 걸을 때 살포시 어깨를 내맡겨 나와 발걸음을 맞추고, 내 마음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

여자 친구란, 내 앞에서 자신이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봐 늘 염려하는 사람.

여자 친구란, 회사에 늦을까 봐 계속 날 깨우면서도, 내 뒤에서 몰래 눈물짓는 사람.

여자 친구란, 어려움 앞에서 강한 듯 보이지만, 내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

여자 친구란, 맑은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로 내 모든 나날을 흠뻑 취하게 만드는 사람.

여자 친구란, 내가 가는 길은 아무리 험난해도 함께 걸어주고, 훗날 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치며 무서워하는 사람.

여자 친구란, 내가 동심으로 돌아갔을 때, 나와 함께 험준한 산과 동굴을 누비고 나서, 내 품에 기대어 크게 웃는 사람.

여자 친구란, 점을 치든 관상을 보든, 어떻게든 나와 맞는 이유를 찾다가도, 결

국은 우리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자 친구란, 일기장 한 가득 내 이름을 채워 넣는 사람.

여자 친구란, 하루라도 못 보면 신체의 일부가 사라진 듯 느껴지는 사람.

여자 친구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쁘게 해 주고 싶은 사람.

여자 친구란, 힘들고 지쳤을 때 떠올리면 내 마음 한구석이 밝아지는 사람.

여자 친구란,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했으면서도, 막상 다른 남자랑 있는 모습을 보면 내 기분이 언짢아지는 사람.

여자 친구란, 내가 남자의 거만함을 던져 버리고 그 포근한 가슴에 뺨뺨한 고개를 묻을 수 있는 사람.

여자 친구란,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내 사랑을 멈출 수 없고, 내 입술에 그녀의 변함없는 따뜻함과 모든 행복과 슬픔, 모든 눈물과 웃음을 가져가게 하는 사람.

